News p/3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제3304호 www.metroseoul.co.kr



"호텔롯데 1분기까지 상장"

market index <17일>

지표	수치	등락
코스피	1976.49	(+1.04)
코스닥	671.50	(−5.43)
금리(국고채 3년)	1.68	(+0.01)
환율(원·달러)	1167.30	(−7.20)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재건축 등 상가 철거 때 세입자 보호대책 여전히 '구멍'
4개월 영업손실 보상이 전부… 권리금 등 구제방법 없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 시 상가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관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이 건물철거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4개월치 영업손실비와 이사비가 전부다. 기습철거에 따른 재산상실이나 위자료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 등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세입자가 재력을 갖춘 시행사를 이기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거 세입자 문제는 여전히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간과 자연' 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호림(사진)씨는 서울 당주동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10년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달 영업을 개시할 '포시즌스호텔' 정문앞이다.

이씨는 호텔 신축 전 이 지역에 있던 건물 중 한 곳에 사무실을 빌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씨는 10년 전 건물 철거 당시 책 1만여 권과 소장 자료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17일 "어느날 느닷없이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출판사가 입주해 있던 건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행사 측이 명도신청 등의 절차도 없이 철거를 강행하는 바람에 소중한 책과 자료 등을 모두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애초 시행사였던 '디비스피에프브이'라는 회사가 도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새 시행사로 나선 '씨티코아'로부터 최근 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받았지만, 2012년 10월께 주변 음식점 상인들이 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아간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라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씨는 이 돈이라도 받고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등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르면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4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이씨 같은 사무실 임차인이 강제철거를 당할 시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보상금' 이다.

이사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주기도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주택 철거에만 해당된다.

한 변호사는 "이씨의 경우 철거가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책이나 자료 등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시행사 측에서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것도 이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멸시효기간(10년)을 넘기기 전에 민사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차인 보호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결국 세입자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거부하고 건물을 점거하는 방법"이라며 "6년전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후로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에도 재개발조합측이 상가 임차인들에게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자 세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전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액수가 크지만 재건축 등으로 철거당하면 사실상 회수할 길이 없다.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이 법적 개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긴 하지만, 이씨와 같이 재건축 등으로 철거당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관련 규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인 등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미국도 사회주의자 돌풍

민주당 샌더스 여론 1위
공화당 극우 트럼프 선두



미국인들이 버니 샌더스(사진)와 도널드 트럼프의 '선명성'에 열광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염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43대 37로 눌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뉴햄프셔주는 물론이고 아이오와주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을 제쳤다.

뉴햄프셔주는 내년 2월 당원이 아닌 일반인까지 참여해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처음 열리는 곳이다. 아이오와주는 당원대회(코커스)가 열리는 곳이다. 이로 인해 두 곳은 대선 풍향계로 불릴 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샌더스 돌풍의 원인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 곳곳에 만연한 차별문제에 정면대응하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이 스스로의 주장만큼 진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개혁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샌더스의 정책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미국 대선은 '선거 후원금의 액수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부들의 선거 후원금은 대선 부호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명도에 좌우돼 왔다. 거액의 후원금을 확보한 유력 후보들은 이 돈을 광고에 쏟아 부어 대중들의 표심을 끌어왔다. '진보'를 표방한 후보라도 이 틀에 일단 묶이게 되면 당선 후 거부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선 이후 행보가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였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틀에서 벗어났다. 그는 부자가 아닌 이웃에게서 한 푼 두 푼 후원금을 모아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부동의 1위' 후보라는 클린턴 전 장관은 1500만 달러(약 176억원)를 슈퍼팩(선거자금을 걷는 조직)을 통해 모금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클린턴 전 장관은 진보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 게이트'(국무장관 시절 공무에 개인이메일 사용 논란)가 결정타로 작용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며 침몰하고 있다.

공화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샌더스 돌풍이 '정책적 선명성'에 따른 결과라면, 트럼프 돌풍은 트럼프 자신의 '인간적 선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명문 부시가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슈퍼팩을 통해 1억300만 달러(약 1524억원)를 모금, 자신의 지명도를 입증했지만 공화당원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Paralyzed Europe by the Syrian refugees.

난민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Grexit or Brexit were not the biggest threat to 'One Europe', it is a Syrian refugee crisis.

According to Christian Science monitor, a death penalty might be declared to the Schengen agreement if EU does not bring about a fundamental agreement on the refugee crisis by next year.

Schengen agreement is the very essence of European unity because i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get rid of boarders between European countries.

The main cause of the Syrian refugee crisis is instability of the Middle East due to the rise of SI.

The civil war between the Syrian and the war with IS are not such problems that can be resolved easily.

It is quite clear that the situation will get worse. The refugee crisis is not just the beginning. However, Europe is completely paralyzed by the situation already.

According to telegraph, Hungary which is one of members of Schengen agreement sealed borders and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in the nation. Next Hungary announced plans to seal its border with Romania and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so that the refugees will not be able to find a way to enter into the country.

'하나의 유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아닌 이슬람 난민사태였다.

15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파리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내년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솅겐조약에는 곧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통합의 본질로 불린다. 사실상 국경선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 난민사태는 이슬람국가(IS)의 발흥 등 중동의 정세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IS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떠돈다는 시리아의 내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되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난민 사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유럽은 삐걱거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솅건조약 가입국인 헝가리는 이날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전면 통제했다. 우회로가 될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와의 국경도 곧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일본 규슈의 아소 화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의 시나붕 화산에 이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16일(현지시간)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다.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의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필리핀**에서 60대 한국인 교민이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번 사건으로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8명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10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피살됐다.

▲ **헝가리 경찰**이 세르비아와 접한 국경에서 입국을 허용하라고 시위하던 중동 난민·이민자들과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정치·사회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 불거진 자신의 과거 운전기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내겠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 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포털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오영규 전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가 최근 신임 뉴미디어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은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2018년 2월 입주 예정인 한 가족을 만나 "어려운 경쟁률을 뚫었는데 새로운 집에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 새로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당시 소장을 기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법제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근 몇년 사이 **10대 몰카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행의 주된 장소도 지하철에서 길거리로 옮겨가는 등 대담해지고 있다.

▲ 화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진화기동대 오토바이**'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48)씨가 성동구 동물병원 근처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범행 후 8일이 되도록 행방이 묘연했지만 경찰의 예상과 달리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다.



대관령 고랭지 무 '풍년' 17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고랭지 무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바쁘다. 극심한 봄 가뭄을 이겨낸 고랭지 무는 튼실하게 자랐으나 값이 헐해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전자**가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 등 경쟁사를 추격할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털고,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KT와 LG유플러스가 블루투스(근거리 무선기술 표준)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기어S2**'의 예약 가입을 18일부터 실시한다. 기어S2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돼 통화·문자·이메일 알림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다. KT와 LG유플러스 각각 500대 한정 판매를 한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하반기 실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양사는 하반기 출시된 신차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생산·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상반기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신규 상장 주식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앞으로는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 대폭 축소되는 등 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이 마련됐다.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인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농심**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5년 9월18일 창립 이후 농심은 반세기 동안 신라면과 새우깡 등 식품 중심의 한우물 경영으로 업계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호방하고 선 굵은 소리로 사랑받아온 '**적벽가**'가 창극으로 선보인다. 국립창극단은 정통 판소리의 묵직한 품격을 모던하게 펼쳐낸 '창극 적벽가'를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개막작으로 올린다.

"아버지께 호텔롯데 상장 승인받았다"

신동빈 "내년 1분기 까지 호텔롯데 상장 완료 할 것"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왕자의 난'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에 대해서는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상의해 허락을 받았다"고 밝히며 '부자'(父子) 간의 골육상쟁도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신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의 "왕자의 난이 끝났냐", "롯데는 한국 기업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진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정리하겠다. 아버지에게 호텔롯데 상장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순환출자고리 정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의 출자고리 해소는 올해 12월까지 하겠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의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지않지만 담당자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순환출자고리의 80%가 해소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 방식에 대해서는 "구주매출(기존 주주의 주식매각)이 아닌 30~40%의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13%를 1996년 한국 국적 취득 전에 아버지(신 총괄회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국내에 전혀 낸 적이 없다"는 주장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롯데에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가 많다. 롯데가 상생하겠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아직도 수 많은 불공정 제보들이 있다"고 말하며 롯데쇼핑 계열사 '롭스'의 하도급 업체를 향한 일방적인 거래중지, 롯데건설의 하도급 업체 추가 공사대금 100억원 미지급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 파악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그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원실업을 왜 정리하지 못하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유원실업은 2007년 롯데쇼핑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가 과징금까지 받은 기업이며 딸 신유미씨가 42%, 그 어머니 서미경씨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유원실업의 지분관계 정리가 안됐다. 그런데 어떻게 롯데그룹 순환자고리 80%를 올해 말까지 정리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신 회장은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신 회장은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웃음까지 보이며 여유있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으나 몇몇 질문들은 이해하지 못해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이 대신 답하기도 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 서서 도중 기침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슈퍼마켓 밖으로 급히 뛰어 나오고 있다. 칠레 당국은 오후 11시께 쓰나미가 덮칠 것을 예보했다. /연합뉴스

일본·인니 화산 폭발에 이어 칠레 강진

'불의 고리' 적신호

일본 규슈의 아소 화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의 시나붕 화산에 이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16일(현지시간)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다.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의 대표지역이라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강진은 산티아고 북서쪽으로 228㎞ 떨어진 태평양 연안, 깊이 25㎞지점에서 발생했다. USGS는 당초 지진 규모를 7.9로 했다가 8.3으로 높였다. 강진 직후 규모 6.0 이상의 여진이 최소 3차례 이상 발생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최소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칠레 당국은 전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남부 푸에르토아이센에서 북부 아리카까지 3900㎞에 이르는 해안가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칠레 당국은 "해안 저지대를 포함한 10개 도시에서 100만여명이 쓰나미에 대비해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일본 등지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기상청은 "칠레 강진으로 인해 태평양에서 넓은 범위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칠레는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높았던 강진이 발생한 곳이다. 1960년 규모 9.5의 강진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시 지진 발생 다음날 1~4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을 덮쳐 140여명이 숨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14일 규슈의 아소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와 연기가 2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 아소 화산만 따졌을 때 1979년 9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5일 시나붕 화산 폭발로 화산재와 연기가 3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

/송시우 기자 swsong@

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무박2일 야당 필사 저지 노력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은 특위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법안은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로 진행됐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전날 밤새 대치에 이어 이날도 여당 소속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는 강수를 두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야당 의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실에 들어가 개회를 선언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에 대해 "양심이 없는가"라고 비난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사토 마사히사 여당 수석이사에게 맡기며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위원회실을 떠났다. 야당 측은 사토 이사에게도 "당신은 권한이 없다" 고 외치며 마이크를 뺏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1호 뉴스테이… 박 대통령 "행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인천 도화동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2018년 2월 입주 예정인 한 가족을 만나 "어려운 경쟁률을 뚫었는데 새로운 집에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착공한 사업이다. 기업이 건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스테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방과 화장실, 서재와 옷장 등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 예정 가족과 환담을 나눴다. 이어 "뉴스테이는 임대료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앞으로 뉴스테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많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총선 D-6개월… 새누리도 공천싸움 막 올라

친박, 본격 '김무성 흔들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놓고
서청원 "성사 불가" 대안 요구
김무성 "약속 지킬 것" 받아쳐


17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니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무현계 패권' 문제는 '문재인 재신임' 정국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친박)와 비박근혜계(비박) 간 공천싸움도 서막이 올랐다. 특히 비박의 정점에 있는 김무성 대표가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친박 측의 '김무성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내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성사 불가능'을 외치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전날 친박 윤상현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권 불가론'으로 멍석을 깔아주자 심중에 담아둔 '본론'을 꺼낸 셈이다.

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어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야당하고 같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 했던 문제가 굉장히,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 김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떳떳한 얘기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반개혁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태가 일어서는 안되며, 국감을 전후해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들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은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느냐. 나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친박 측 공세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간 거 정치권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거냐. (김 대표가) 얘기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에 압승을 거두며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언해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회로 친박을 당에서 고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절실했다는 분석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그 전초전 성격이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서는 당협위원장과 같은 기득권을 쥔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마약사위 논란 역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대세력이 김 대표를 정조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살아남기 위한 당내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내 '빽'으로 고작 용역직원?"

최경환, 또 인사청탁 의혹
"일반적 채용" 전면 부인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새로 불거진 자신의 과거 운전기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내겠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운전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시키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17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2008년 4월께 경북 경산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외주용역업체 입사 후 또 다른 용역업체를 거쳐 2009년 말 대구경북연수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장관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의원실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 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하여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A씨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최 부총리는 2년 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의 B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모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B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윤모 인사팀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B씨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했다. B씨는 수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랐다. 중진공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송병형 기자

'포털장악 논란' 민병호 靑 뉴미디어비서관 사의

일각 내년 총선 연관설 솔솔
오영규 전 SK컴즈상무 내정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오영규 전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가 최근 신임 뉴미디어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새로 만든 자리다. 하지만 '초대'라는 상징성을 띠고 자리에 앉은 민 비서관은 올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의 배후설이 나돌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 비서관은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재벌의 대변단체인 광고주협회의 입김설을 주장했다.

곧 출범할 제휴평가위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 재벌 대기업,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휴평가위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이 이를 뒷받침한다. 준비위에는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류언론을 대변하는 신문협회는 물론이고 인터넷신문협회 역시 주류 언론과 가까운 보수 성향의 매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민 비서관은 제5~6대 인터넷신문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민 비서관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의 개인 사정이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가 연루된 제휴평가위 역시 총선과 무관치 않다. 현재 새누리당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인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연일 '포털 때리기'에 열심이다. 제휴평가위가 출범하면 비주류 언론의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지는 등 '포털 때리기'의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터넷 언론의 등록 여건이 강화되면서 비주류 언론은 총선 전 대부분 고사할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정재찬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볼 것"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17일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나"고 묻자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10월 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독점행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착취행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순적 행위 등에 대해 현재 증인인 윤영찬 이사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으로 IT·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법을 통해서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 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소속된 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공격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소통 없는 박원순표 서울역고가 공원화"

서울시 국감서 여당 의원들 지적
"일부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 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일부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두고 만리동 주민 등이 반대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련기관들도 부정적 의견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자세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소통과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고가공원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합리적 추진을 강조했다.

진영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울역고가 폐쇄로 인한 교통영향평가가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가 정확한 자료와 객관적인 검증으로 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을 한데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박 시장이 (한전 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공약인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했다"면서 "시장의 치적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하철 혼잡도 해결과 도로함몰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시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예산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도 소용없고 안전문제가 최고 관심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안전문제인 만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 역시 도로함몰 문제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이 마땅치 않아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인 문희상 의원은 서울역고가는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돼 당장 차량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교통심의를 보류한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시 사업 딴죽걸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자신의 치적 사업이라는 지적에 "코엑스와 잠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일대를 국제지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전임 오세훈 시장 때 계획된 것"이라며 "(서울시장) 임기 중 거의 착공 정도나 할 수 있어 가시적인 치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각종 사업에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뵙고 싶지만 쉽지 않다"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며 의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70년만의 귀향… "이제 현해탄만 건너면 됩니다" 17일 오후 일본시모노세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유가족 김경수(오른쪽)와 손영진씨가 위패를 들고 부관페리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는 이날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115위를 모시고 그리던 고국을 향한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檢, '고객 투자금 유용' 금융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7일 금융업체 I사가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남에 있는 본사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돈을 불려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확보한 1000억원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I사가 30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I사는 금감원의 특별검사 과정에서 사무실을 찾아온 검사역들의 출입을 막고 이들을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한 뒤 I사 실무진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미란 기자

'트렁크 살인' 김일곤, 병원서 난동부리다 잡혀

성동구 떠나지 않고 머물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48)씨가 붙잡혔다. 김 씨는 범행 후 8일이 되도록 행방이 묘연했지만 경찰의 예상과 달리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다.

공개수배로 바뀌면서 전 국민이 자신의 얼굴을 알게 된 것에 자포자기한 것인지 김씨는 서울 성동구를 떠나지 않고 그곳의 한 동물병원에 나타나 개 안락사약을 빼앗으려 강도행각을 벌였다.

이미 2차례나 병원을 방문한 김씨는 오전 9시 50분께 다시 병원에 나타나 안락사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원장이 "왜 큰 병원에 가지 않고 다시 왔느냐"는 말에 김씨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집사람이 개를 데리고 올 건데 여기서 기다리겠다"며 손님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3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김일곤이 17일 오전 검거돼 서울 성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원장과 간호사를 향해 "다 모여서 나란히 서. 약 내놓으라니까"라고 외쳤다.

원장이 "진정하라"며 김씨를 달래다 뒷걸음질치며 간호사와 함께 미용실로 연결된 문으로 재빨리 도망갔다.

미용사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김 씨는 병원을 빠져나갔다.

3~4분 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고, 미용실에 숨어 있던 이들은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병원에 출동한 경찰이 김씨 수배전단을 보여주자 원장과 간호사들은 비로소 김씨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렸다.

즉시 지구대 순찰차가 김씨를 찾아 나섰고, 순찰차 한 대가 도망가던 김씨를 발견했다.

성수지구대 김성규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김씨에게 접근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다시 흉기를 꺼내 들었다.

김 경위 등이 필사적으로 김씨와 엉겨붙어 넘어졌고,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김씨의 칼을 빼앗아 버렸다. 결국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검거됐다. /최치선 기자

신임경찰, 한국장학재단에 4700여만원 기탁

제282기~284기 신대현 대표 "학생들 위한 보람된 기부"

신임 경찰 제282기, 제283기, 제284기(졸업생 대표 신대현)는 9. 16일(수), 보육원 퇴소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이하 '재단') "푸른등대"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중앙경찰학교 졸업생들이 정성을 모아서 마련했다.

기부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보육원 퇴소 대학생의 생활비로 2016년 1학기에 20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학생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이라는 중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첫 출발을 시작하는 신임 경찰들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원 퇴소학생을 위한 마음을 전한 따뜻한 기부 "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부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경찰 제282기, 제283기, 제284기를 대표해 기부금을 기탁한 신대현 경찰관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만큼 값지고 보람된 기부는 없을 것"이라면서, "신임 경찰로서 국민행복·국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번 장학금의 선발 공고는 2016년 1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이대열 이사(왼쪽)와 신임경찰(282기, 283기, 284기) 신대현 대표.

/최치선 기자 chisunti@

자원외교 비리 '독단적 투자' 결론

檢 수사 반년 만에 종료
전 공기업 사장 2명 기소
끝내 실체규명은 못해

검찰의 자원개발비리 수사가 반년 만에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을 남기고 일단락됐다. 이 수사로 에너지 공기업 전직 사장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공기업 전직 사장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올해 1월에는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하고 민사상 책임도 물으라고 통보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를 구체적으로 지목,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몇 달 동안 접수한 고발장을 전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넘겼다.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넘어설 횡령이나 금품로비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고심 끝에 고른 첫 타깃이 성 전 회장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삿돈 횡령은 물론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성 정부융자 정황에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사업 비리 등 공기업을 상대로 한 본격 수사의 디딤돌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4월 9일 정치권 금품로비 목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원외교 수사의 동력은 급격히 사라졌다.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주창한 이완구 전 총리도 결국 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전열을 재정비한 수사팀은 5월 12일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전직 공기업 사장들을 직접 겨눴지만 뒷돈 거래 등 권력형 비리를 캐내지는 못했고 배임 혐의를 입증할 논리 구성에 집중했다.

전직 공기업 사장들은 "자원개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영상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기업에 배임죄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리한 투자로 인한 피해가 전부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기업 사장에게는 해임 결의 등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어 사실상 전횡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나아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제도상 허점을 정비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 사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는 있지만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분류해 실질적인 감사·감독이 이뤄지지는 못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기업 경영진에게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제안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공사에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실명위기에도 웃음 선사하는 개그맨 '김 민'

"시력 잃을수록 사랑의 눈은 더 좋아졌어요"

개그맨 김민 씨(59). 1980년 6월 김형곤, 장두석, 조정현, 이성미와 함께 TBC 공채 개그맨 2기로 출발했다. 그는 현재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왼쪽의 시력도 거의 실명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사랑의 눈이다. 이 사랑의 눈으로 그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의정부 나눔의 샘과 종로구 청운양로원에서 자신의 개그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가 하는 개그는 조금은 철 지난 개그지만 사람들은 웃는다. 수없이 들었던 레퍼토리도, 반복되는 농담도 그가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웃는다.

지난 11일 의정부시 민락동 나눔의 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불편한 눈으로 자신의 주특기인 개그로 강당에 가득 모인 노인들을 웃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직 대통령 성대모사나 특유의 만담에 울고 웃는 노인들을 보면서 '존재의 이유'를 느낀다고 했다.

재능기부를 시작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전세금을 사기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까지 왔는데 거기에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으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실의에 빠져서 지내



사회를 보는 개그맨 김 민. /나눔의 샘 제공

고 있는데 어느날 낙원동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 갔다가 할아버지 몇 분이 모여 있기에 즉석에서 개그를 했지요. 큰 기대없이 본능적으로 한 것인데 너무나 즐거워하셔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양로원과 복지원 등에 계신 어르신을 위해 개그를 다시 시작 했어요"라고 답한다.

다행히 혼자가 아닌 든든한 두 동생이 함께 하기에 그의 공연은 힘이 난다. 매달 둘째주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청운양로원과 나눔의 샘을 번갈아가며 위문공연에 나선다. 그 때마다 두 '동생'들도 함께하곤 한다. 할머니들은 이들을 "세아들"이라고 부른다. 둘째 아들 강길성 씨와 막내아들 김호평 씨다. 이들은 양로원을 찾을 때면 사탕, 과일, 빵 등을 사 갖고 간다.

그는 "한 달에 10만원을 투자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걸 못 쓰겠느냐"고 말한다. 그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숙연해진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 남들을 돕는 것을 의무라고 말했다.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그 날까지 그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민 씨는 "남북한 홀로되신 노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공연을 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며 죽기 전에 그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태화강 둔치 가득 메운 조선사 노조원들 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조선노연 공동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 신아sb, 한진중공업 등의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檢, '포스코 특혜' 외주사 1곳 추가 압수수색

이병석·이상득 관련성 수사

검찰이 포스코 특혜 의혹을 받는 외주사 한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7일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D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거래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스테인리스 공장내 분진 및 슬래그 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

검찰은 D사가 포스코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하는 등 사업상 특혜를 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D사 대표 최모씨의 친동생(61)이 새누리당 이병석(63) 의원의 최측근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이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지역 정치인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북도의원직에 출마했다.

실제 D사는 정준양 전 회장 재임기간인 2009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D업체의 특혜 수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정 전 회장이 이러한 특혜를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최씨가 지역 정치권에 깊이 발을 담근 이력에 비춰 이상득(80) 전 의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11일 압수수색한 자재 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러한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5일 정 전 회장을 네 번째로 소환해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과 함께 정치인과 연계된 외주업체 특혜 제공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4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주 초부터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LOTTE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맑고 깨끗함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맑 고 깨 끗 한
칠성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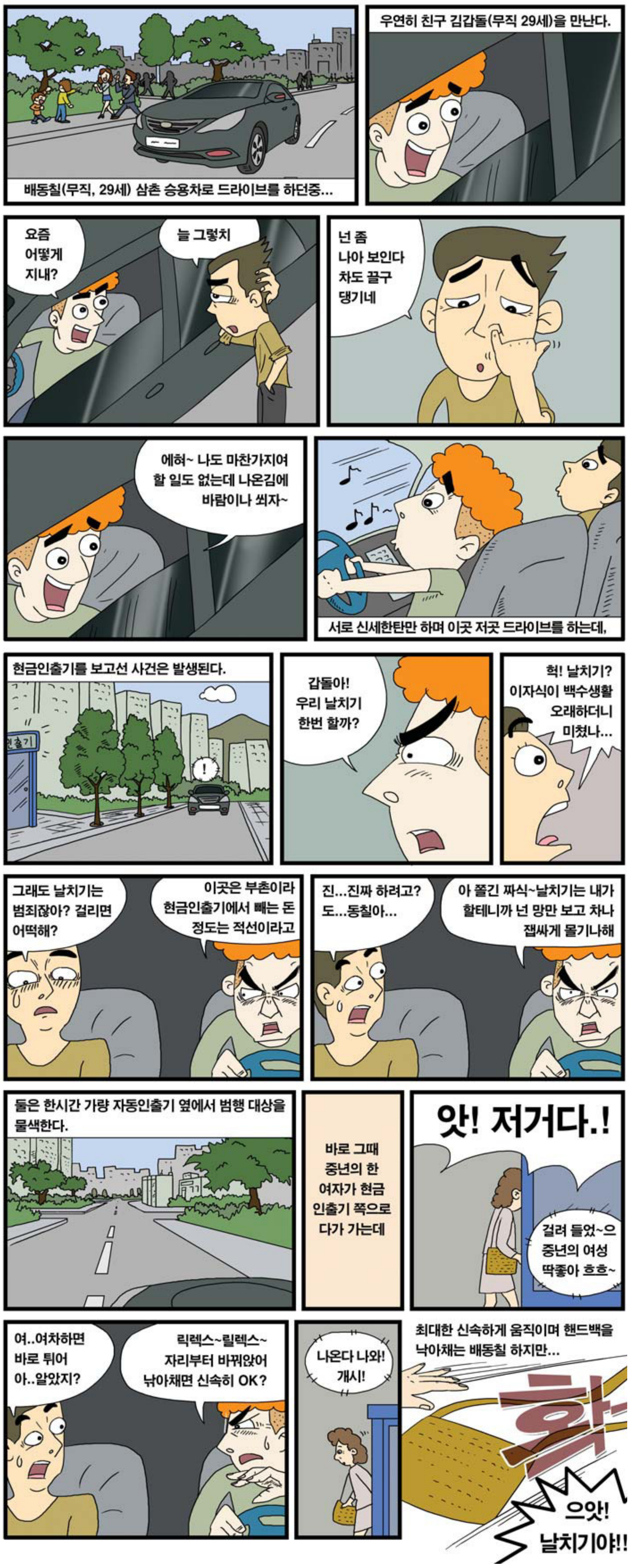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15화 날치기와 강도>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601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G '슈퍼폰'·'올레드TV' 반격의 서막 연다

스마트폰 부진 탈출·프리미엄 TV 시장 주도권 노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TV시장에서 삼성 등 경쟁사를 추격할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털고,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서울과 미국 뉴욕에서 LG전자의 스마트폰 제조 역량이 집약된 '슈퍼폰(가칭)'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준호 MC사업본부장(사장)이 기획 단계부터 진두지휘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LG전자가 거는 기대가 크다.

이 제품은 현재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G4(5.5인치)보다 큰 5.7인치 화면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형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카메라 성능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개의 카메라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듀얼 카메라가 장착 될가능성이 크다. 듀얼 카메라는 하나의 카메라가 피사체의 초점을 잡으면 나머지 카메라가 배경을 촬영해 이미지를 합성한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물은 화질과 원근감이 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화질은 풀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4K급 동영상을 촬영하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LG전자가 티저 이미지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비장의 무기가 탑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제품의 성적표에 따라 향후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G플렉스2와 G4 등 LG전자의 전략형 제품의 반응이 시원치않은 상황에서 LG전자로서는 슈퍼폰의 성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LG전자의 TV 사업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올레드 TV(왼쪽)와 차세대 전략형 스마트폰 발표 행사의 티저 이미지. /LG전자 제공

최근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잇달아 올레드 TV를 내놓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올레드 TV 시장을 홀로 이끌다시피 한 LG전자는 여러 업체들의 올레드 TV 시장 진입을 반기는 모습이다. 올레드 TV 제조사 많아지면 전체 시장이 커지고, 선두주자인 LG전자가 올레드 TV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권봉석 LG전자 HE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올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올레드 TV를 상반기 대비 5배 이상 판매할 것"이라며 "지금이 올레드 TV 대중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KT·LGU+, '기어S2' 500대 예약판매

이동통신망 아닌 블루투스
SKT '기어S2 3G' 내달출시

이동통신 사업자 중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망이 아니라 블루투스(근거리 무선기술 표준)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기어S2'의 예약 가입을 18일부터 실시한다.

기어S2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돼 통화·문자·이메일 알림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다.

예약가입 계획이 없는 SK텔레콤은 3세대 통신모뎀이 내장된 '기어 S2 3G'를 10월 중으로 판매한다.

기어 S2는 약 2주간 KT 온라인 공식채널인 올레샵(shop.olleh.com)과 올레 액세서리샵 앱, LG유플러스 전국 매장과 온라인 홈페이지(www.uplus.co.kr)에서 예약가입할 수 있다.



17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삼성전자 '기어S2'을 들고 예약판매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기어 S2의 가격은 33만3300원이고 기어 S2 클래식은 37만4000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 각각 500대 한정 판매를 한다.

기어S2는 최근 IFA 2015에 공개돼 언론의 주목을 받은 타이젠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최초로 원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선보인 회전 베젤(테두리 부분)과 더불어 화면 터치만으로 아이콘 선택이 가능하다. 홈이나 뒤로 가기 버튼 지원 등을 통해 조작성이 향상되어 빠른 실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선이 필요 없는 Fast-charging 무선 충전 기술이 지원되는 점도 눈에 띈다.

/정문경기자 hm0108@

삼성전자, 5G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 선도

5G워크숍, 3GPP→5G 표준화 최초 논의

삼성전자가 5G 이동통신 기술(이하 5G) 표준화를 선도한다.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피닉스(phoenix)에서 열린 3GPP RAN '5G워크숍'에서 5G 이동통신이 지향해야 하는 비전과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제안했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기존 4G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수십배 빠른 20Gbp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GPP RAN '5G 워크숍'은 전세계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3GPP에서 최초로 5G 표준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워크숍에는 500여 명의 이동통신기술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60여 개 이동통신 업체에서 각 사가 바라보는 5G 기술에 대한 기고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초고속 5G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G LTE 표준화 착수를 위한 워크숍에 150여 명, 20여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5G 표준에 대한 관심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3GPP 주요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 기고문 작성을 주도하여 워크숍에 제안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임직원 봉사단, 쪽방촌 돌며 안전지킴이로

KT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자동 쪽방촌에서 대한민국 통신 130년을 맞이해 42개의 KT그룹사 임직원 5만7000여명으로 구성된 KT그룹 임직원 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130명의 봉사단원들은 첫 번째 활동으로 서울역 쪽방 상담소와 협력해 동자동 쪽방촌 내 600여가구 1000여명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우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 계층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KT그룹이 개발한 '비콘 안부 확인 서비스'가 처음으로 쪽방촌 내 주거지역에 적용됐다.

인터넷 기반의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동자동 주민의 거주지 출입구에 비콘을 설치해 움직임을 감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쪽방촌 상담소에 설치된 관제 시스템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주민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KT그룹은 주변 치안 강화를 위해 쪽방촌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KT파워텔의 LTE무전기 '라져1' 단말기 10대를 지급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LG전자,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선봬

LG전자는 사용편의성을 강화한 '디오스(DIOS) 얼음정수기냉장고(모델명: J887SB35)'를 다음 주 출시하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용량인 120㎖, 500㎖, 1ℓ 등을 적용해 정량 급수가 편리하다. 디스펜서 상단의 터치 패널에서 정수 용량 버튼을 한 번만 터치한 후 레버를 누르기만 하면 선택한 용량만큼 급수된다. 또 냉동실을 열지않고도 레버를 누르면 각얼음 혹은 조각얼음이 나온다.

'디오스얼음정수기냉장고'는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적용해 세균과 물때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했다. 3단계 안심정수필터는 수은, 납 등의 중금속과 냄새를 제거한다.

'헬스케어 매니저'는 주기적으로 고객집을 방문해 정수기 내에 물이 통과하는 부위를 전기분해 방식으로 살균하고 필터를 교체해주는 LG만의 차별화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690만원이다.

/조한진 기자



16일 '한화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윷놀이를 즐긴 후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제공

한화, 성동구 주민들과 전통놀이 한마당

추석맞아 직원봉사자 파견 지원

㈜한화는 서울시 마장동에 위치한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후원하고 직원 봉사자를 파견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4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주민들은 추석 박 터트리기,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편 빚기, 전통의상 입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도 했다.

한화는 2008년부터 성동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친환경생활캠페인, 어르신 건강증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산 넘어 산 현대차그룹

하반기 실적 적신호… 추석 근무일수 감소하면 판매량도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하반기 실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각각 69.75%, 72.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양사는 하반기 출시된 신차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생산·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대차는 신형 세단 아반떼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싼타페로, 기아차는 신형 세단 K5와 SUV 스포티지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현대차 올 뉴 투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기아차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기아차 노조는 18일 9차 본교섭을 임금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여기에 더해 9월 추석연휴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현대차는 설 연휴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35만9982대를 판매했다. 기아차도 같은 기간 8.7% 감소한 22만1669대를 판매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SKC, CMP Pad 사업 진출

연매출 1000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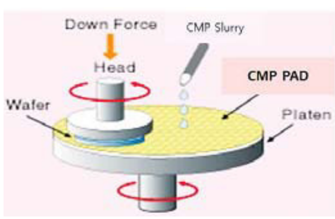
SKC는 동성에이엔티와 CMP(화학적기계연마) Pad 특허·영업권에 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CMP Pad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연마해 평탄화시키는데 쓰이는 폴리우레탄 제품이다.

SKC는 기존 화학사업의 CMP Pad 원료생산·기술역량과 결합해 제품을 연내 양산할 계획이다.

SKC 측은 "CMP Pad는 반도체 CMP 공정에 쓰이는 고부가 제품이지만 특허문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이라며 "미국 글로벌 회사가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으로 SKC는 특허기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존 화학사업에서 CMP Pad 원료를 생산하고 있어 원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CMP 공정. /SKC 제공

SKC는 폴리우레탄 생산기술과 제품개발 역량을 CMP Pad 사업에 접목시킬 방침이다.

또 이번 CMP Pad 진출에 이어 CMP 슬러리 사업도 진출할 계획이다.

정기봉 SKC 사장은 "CMP Pad는 고기능, 고부가 폴리우레탄 제품으로서 SKC는 적극적인 투자와 R&D(연구개발)를 통해 국내 반도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2020년까지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는 2014년 13%를 차지했던 스페셜티의 매출 비중을 2018년까지 33%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SK C&C, 재해복구 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멘텍과 공동개발 MOU

SK주식회사 C&C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맨텍과 재해복구 운영관리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맨텍은 재해복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재해복구 분야에서 20여 년 동안 3000여 고객을 확보하며 현재 국내 시장 1위다.

MOU에 따라 SK주식회사 C&C는 우체국 금융, 울산대병원 등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쌓은 시스템통합(SI) 노하우를 제공한다.

맨텍은 자체 보유한 솔루션 개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재해복구 센터의 운영·관리를 자동화하는 새로운 재해복구 운영관리 솔루션을 개발한다.

솔루션은 재해복구 센터의 운영관리를 자동화해 주는 솔루션으로 ▲서비스 기동 자동화 ▲변경관리 자동화 ▲재해복구 프로세스 가시화 ▲가상모의 훈련 ▲GUI(Graphic User Interface)기반의 직관적 대쉬보드 등의 기능을 보유한 솔루션이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SK주식회사 C&C 분당 사옥에서 김만흥 SK주식회사 C&C 전략사업3본부장 상무(왼쪽)와 김형일 ㈜맨텍 사장이 '재해복구 운영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 C&C 제공

두 회사는 11월까지 재해복구 운영관리 솔루션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11월 하순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만흥 SK주식회사 C&C 전략사업3본부장 상무는 "국내 1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SI 노하우를 솔루션화 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재해복구 운영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에서도 맨텍과 동반성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효성, 15개 대학서 '열린 채용 설명회'

효성은 전국 주요 대학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한 열린 채용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효성 측은 설명회에서 사업내용, 인재상, 면접 전형 등을 소개했다.

또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선배 사원들이 답변해주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효성 측은 "이번 공채부터 입사지원서의 증명사진 첨부란과 가족사항 기재란을 삭제했다. 외국어 성적, 학점, 지원 연령에도 제한이 없는 '탈스펙' 채용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입사 지원서는 18일 오후 6시까지 효성그룹 채용사이트(http://recruit.hyosung.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정용기 기자



넷마블, 채용설명회 '잡쇼' 내일 개최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 대표 권영식)는 19일 2015년 하반기 넷마블컴퍼니 채용설명회 '잡쇼(Job Show)'를 서울 구로동에 있는 사옥에서 개최한다.

사내채용설명회는 2015년 넷마블 하반기 신입 공개 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와 직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자리다. 온라인 신청자 중 선정된 15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사내투어 ▲넷마블컴퍼니 소개와 2015년 하반기 공개 채용 설명 ▲넷마블 스타임원과의 만남 ▲직무별 전문가를 통한 게임회사 직무소개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넷마블컴퍼니 사이트(https://www.netmarbl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重-삼성엔지니어링株, 합병설따라 '출렁'

17일 오전 합병설에 급등 오후 합병설 부인에 급락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합병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강세를 보이다 삼성중공업이 합병설을 부인함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87%(250원) 내린 1만3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7.99%(2650원) 떨어진 3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1만415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합병설을 부인한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서 1만2800원까지 한때 떨어졌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장 초반 3만5650원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급락해 3만150원까지 미끄러지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추진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거래소의 합병 재추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부인했으나 이번 공시에는 '현재 미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해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합병 추진설은 부인하면서도 양사 합병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15일 조선해양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상황을 봐가며 합병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발언으로 합병 재추진 가능성이 부각되며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은 지난 16일 각각 전일 대비 11.25%, 18.60% 급등했다.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도 지난 16일 수요 사장단 회의 후 언론에 양사 합병 재추진의 당위성과 의지를 피력하며 합병설에 힘을 실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합병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17일에도 양사 주가가 급등했지만 삼성중공업의 공시 발표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통과 여부와 삼성그룹 차원의 판단이 양사 합병 재검토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에는 지난해 11월 양사가 합병을 포기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주주의 주식매수청권과 관련해 요청 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합병을 결의했다. 두 회사는 플랜트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슬림화와 통합 자재 구매 등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 계획은 지난 11월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 행사되며 결국 무산됐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7063억원으로 앞서 정한 매수대금 한도 4100억원을 초과한 것.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금액 9235억원을 합하면 두 회사는 1조6299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자 두 회사는 "합병법인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합병을 포기한 바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국제유가 급등, 정유·화학株 동반 강세

증권가 "FOMC 이후 국제유가 더 오른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화학주가 일제히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는 더 오를 것이라며 화학주를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꼽고 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2.39%(6000원)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케미칼은 전일보다 1.08%(3000원) 오른 28만500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전날보다 2.49%(2500원) 오른 10만3000원, S-OIL은 1.56%(1000원) 상승한 6만4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표 수혜주인 정유주와 화학주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56달러(5.7%) 오른 47.15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달러(4.2%) 상승한 49.75달러를 나타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대표적인 수혜주인 정유주와 화학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는 미국 FOMC를 기점으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고 원유시장에서의 수급 개선과 맞물려 반등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거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FOMC 이후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가는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다"며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된다면 원유시장에서의 수급 개선과 맞물려 유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1990년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에도 국제유가는 상승한 바 있다.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요 개선 기대감에 유가가 반등했다. 1994년 2월4일 금리인상 이후 1개월 뒤 WTI유가는 6.8% 하락했지만 3개월 뒤에는 7.9% 상승했다. 2004년 6월30일 금리인상 이후에도 유가 상승세는 지속됐다.

특히 올해 유가 하락을 불러온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는 점도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노 연구원은 "유가 반등은 화학업종에 가장 긍정적"이라며 "화학제품 스프레드 역시 유가가 반등하면서 9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만성질환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금감원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 발표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림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림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 중소형주 투자펀드 출시



국내에선 처음으로 인도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7일 국내 최초로 인도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해 판매되는 이 펀드는 인도 주식 중에서 향후 대형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된다.

인도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제외한 종목으로 구성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연금마케팅부문 이철성 대표는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펀드는 잠재력 있는 시장에서 우량자산을 발굴하는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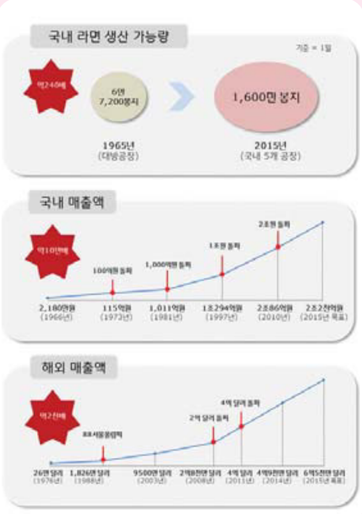
먹거리 한우물… 혁신본능으로 100년史 쓴다

농심 창립 50주년

농심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5년 9월18일 창립 이후 농심은 반세기 동안 신라면과 새우깡 등 식품 중심의 한우물 경영으로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농심은 국내외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혁신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해 100년 역사를 새로 열겠다는 목표다.

농심 50년사 연표

1965년 9월	롯데공업주식회사 설립
1965년 12월	롯데라면 출시
1970년 2월	인스턴트 짜장면 '롯데 짜장면' 국내 첫 출시
1970년 10월	소고기라면 출시
1971년 12월	국내 스낵의 효시 새우깡 출시
1975년 10월	농심라면 출시
1978년 3월	주식회사 '농심'으로 사명 변경
1980년 7월	국내 최초 감자칩 포테토칩 출시
1982년 4월	안성공장 준공
1982년 11월	너구리·육개장 사발면 출시
1983년 9월	안성탕면 출시
1984년 3월	짜파게티 출시
1985년 3월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1986년 10월	신라면 출시
1991년 11월	아산공장 준공
1996년 9월	중국 상해공장 준공
1999년 9월	구미공장 가동식 실시
2005년6월	미국 LA공장 준공
2006년11월	부산 녹산공장 준공
2011년4월	신라면 블랙 출시
2012년12월	농심 백산수 출시
2013년7월	할랄인증 신라면 출시
2015년 4월	짜왕 출시
2015년 10월	백산수 신공장 준공(예정)



◆식품사업 외길 50년의 시작



신춘호(사진) 농심그룹 회장은 1999년 쓴 '철학을 가진 장이는 행복하다'란 제목의 자서전에서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큰형이 반대하자 일종의 오기가 생겼다"고 회고한다.

10남매 가운데 다섯째인 신 회장은 한때 큰형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도와 롯데를 키우는 데 함께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라면을 생각한 신 회장과 '밥 대신 라면을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신 총괄회장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동생은 롯데그룹을 떠났다.

신 회장은 35세 되던 1965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지금의 농심 사옥이 있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라면 뽑는 기계를 들여놓고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회사명은 지금의 농심이 아닌 '롯데공업사'였다.

롯데공업사로 출발했던 농심은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라면 개발을 시작했다. 라면의 원조인 일본기업과의 기술제휴가 사업 초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독자적인 성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농심의 의지는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식문화 트렌드 선도

농심의 첫 제품은 1965년 9월 당시 유행하던 닭고기 육수를 사용한 '롯데라면'이었다. 그러나 농심은 라면의 재료로 소고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국의 깊은 맛을 라면으로 구현해보자'는 생각에서다.

농심은 1970년 10월 소고기 국물2ㅂ을 재료로 한 '소고기라면'을 출시하고 국내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 그 결과 시장점유율도 10%대에서 22.7%로 끌어올리며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1975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카피로 인기를 끈 '농심라면'을 출시했다. 농심라면의 큰 인기로 1978년 회사명을 지금의 '농심'으로 바꾸고 라면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1971년 12월에는 국내 최초의 스낵인 '새우깡'을 출시했다. 농심 관계자는 "새우깡은 1년 여의 개발기간 동안 기계 밑에 가마니를 깔고 자며 4.5톤 트럭 80대 분의 밀가루를 사용한 끝에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며 "믿고 먹을 안전한 간식이 전무했던 시절 식품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짭짤하면서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의 새우깡은 독특한 이름과 함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출시 3개월 만에 농심 매출에 2배 가까운 성장을 가져다 줬다. 이후 농심은 감자깡(1972년), 고구마깡(1973년), 인디안밥(1976년), 바나나킥(1978년), 꿀꽈배기(1979년)를 줄줄이 내놓으며 히트 행진을 이어갔다. 라면뿐 아니라 스낵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구촌 입맛을 사로잡다

농심이 수출에 처음 나선 것은 1971년이다. 1981년에는 일본 동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해외 수출 네트워크를 본격화했으며 1996년 상해공장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해외생산체제를 구축했다. 2005년에는 미국 LA공장을 가동했다.

농심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에 생산·판매법인과 영업지점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자체 해외 네트워크와 판매 파트너를 통해 유럽의 지붕 스위스 융프라우부터 지구 최남단 칠레 푼타아레나스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라면과 스낵을 판매하고 있다.



신춘호 회장 '자체 연구소' 결단
1위 기업 독자적 성장 밑거름 돼
안심 먹거리·식문화 트렌드 선도

1971년 해외 노크 후 100개국 진출
중선 '백산수'로 생수시장 출사표

농심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라면시장의 허브인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중국에서는 백산수로 생수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농심은 생수를 미래 100년 성장을 책임질 전략사업으로 정했다. 이러한 전략 아래 지난해 건설에 들어간 백두산 '백산수' 신공장은 10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농심은 세계 최고의 물에 최첨단 설비를 갖추게 되는 만큼 백산수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수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농심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서 신춘호 회장 박 준 사장 을 비롯한 계열사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사장은 "농심 성장의 역사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사라 할 수 있으며, 농심은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며 발전해왔다"며 "지난 50년 속에 녹아든 부단한 자기혁신 본능을 새롭게 해 백두산 백산수를 중심으로 글로벌 농심, 100년 농심을 이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국민라면 辛라면, 글로벌 辛세계 연다

깊은맛·매운맛 조화 얼큰라면
국내에서만 240억개 판매 돌파

해외 교포·현지인에게도 인기
'식품업계 반도체' 자리매김

농심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단연 '신라면'이다. '깊은맛과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 얼큰한 라면'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신라면은 1986년 출시되자마자 가파른 매출 상승곡선을 그리며 '국민 라면'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농심은 1985년 시장 1위에 올라선 다음, 신라면 출시로 확고한 독주체제를 갖추게 된다.

신라면 출시에 앞서 열린 내부 시식회에서 "너무 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신춘호 회장은 신라면의 독특한 매운 맛은 매력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맛과 품질은 물론 작명, 포장 디자인까지 챙기며 제품출시를 독려했다.



1986년 신라면 포장지(왼쪽)와 현재 포장지. /농심 제공

신라면은 출시되자마자 가파른 매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출시 첫해 석 달 동안 30억원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987년에는 무려 180억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며 국내 라면시장의 대표주자로 뛰어 올랐다.

현재 신라면은 라면시장 부동의 1위 제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중 하나다. 국내외에서 연간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라면은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지난해까지 240억개가 판매됐다. 일렬로 세워 지구를 약 108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신라면은 해외에서도 교포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는 인기를 모으며 식품 한류의 신화를 쓰고 있다. 사나이 울리는 라면에서 세계인을 울리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 신라면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은미 기자



軍과 함께하는 2015 wonju dynamic

Dancing Carnival

아시아의 리오!
댄싱카니발!

시민들의 열정으로 만드는
지상최대, 최장의 거리퍼레이드 축제!
총상금 1억 5천! 5분의 승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9.16(수)~20(일)

원주시 따뚜공연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대

- 9. 16 (수) 개막식 한국전통의날
- 9. 17 (목) 군악의 날
- 9. 18 (금) 클래식&합창의날
- 9. 19 (토) 댄싱카니발의 날
- 9. 20 (일) 폐막식 댄싱카니발 BEST15 경연

주최 원주시 제 36사단 주관 원주문화재단 후원 강원도 GANGWON PROVINCE 1군사령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지중해 과일과 꽃이 최고급 잼으로

롯데백화점 'PECK잼'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추석을 맞아 'PECK 잼세', '윤가명가 칠첩보원', '프리미엄 고추장세트' 등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최고급 과일잼 6종 세트인 PECK의 잼은 일조량이 풍부한 지중해에서 재배한 과일과 꽃만을 사용해 맛과 향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살구잼과 체리잼, 무화과잼, 복숭아잼, 라즈베리잼, 스트로베리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19만원이다. .

칠첩보원은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복령분말, 자황즙, 연밀(꿀)을 혼합해 만들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드릴 효도 선물이나 바쁜 직장동료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이다. 50환에 30만원이다.

진귀한 자연송이,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백화점 '자연 송이'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이 추석 선물로 자연송이를 추천했다.

올해 추석은 지난해보다 19일이 늦어지면서 자연송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인 백로(9월8일)이후 수요를 조달하게 된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최대 50% 낮아지고 물량은 6배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600kg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연송이는 인공재배가 어려워 매년 기후에 따라 출하량이 급변하지만 올해는 8월 말부터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일대 산지



에 비가 많이 와 풍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현대백화점은 바이어가 직접 산지를 돌며 크기 8㎝ 이상에 갓이 퍼지지 않은 자연송이를 찾아 지난 2일 유통업계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엄선된 프리미엄 건강식품 선물하세요

한화갤러리아 '제주 흑망고'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는 추석 선물로 엄선한 국산 맞춤형 건강식품인 '제주 흑망고'와 '무등비과'를 제안했다.

단독으로 선보이는 제주 흑망고 세트는 토심이 좋아 농산물이 맛있기로 유명한 서귀포시 대정리에서 재배됐다.

흑망고는 일반 망고보다 2배 이상 크고 색깔은 애플망고와 달리 자랄 때는 보라색이었다가 수확기에는 검붉은 색을 띈다.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왕특 흑망고 4개 기준 45만원이다.

전남 광주지역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에서만 생산되는 특이하고 신비로운 과실'이라는 뜻에서 무등비과라고 불린다. 일반 수박과 달리 줄무늬가 없는 진초록 빛의 대형 수박으로 원시적인 단맛을 지녔다.

지역 특산물에 품격 더한 전통 먹거리 세트

AK플라자 '전통 먹거리 세트'

AK플라자(대표 정일채)는 우리 고유의 전통 먹거리인 '장흥돈차 청태전'·'감홍로주'·'나주 토하젓' 세트를 추천했다.

장흥돈차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남해안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발효 녹차로 9만원부터 11만5000원선에 판매된다. 감홍로주는 조선 3대 명주 중 하나로 꼽히는 평안도 지방 최초의 증류식 소주다. 가격은 5만원이다.

나주 토하젓은 전남지방 민물새우를 일컫는 '토하'를 찹쌀밥과 각종 양념, 소금에 절여 만든 향토음식이다. 가격은 8만



5000원이다.

양평군 개군면의청정자연에서 키운 1등급 무항생제 '개군한우 세트'는 18만~75만원, '완도산 참전복세트'는 15만~22만원, '제주 생물갈치 특대세트'는 25만원이다. 4명의 전문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세트 8종과 세계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수상자 등 6명의 대표 로스터들이 로스팅한 원두세트 등도 선보였다.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하나로 선물세트'

농협유통 '하나로 선물세트'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은 추석을 맞아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하나로 선물세트' Best4를 선정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우선 사과(7개)와 배(6개)로 구성된 '아침마루 사과·배 혼합' 세트가 첫 번째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른 추석으로 사과와 배의 출하시기가 빨라 크기가 평년 대비 작지만 당도는 높다. 아침마루 선물세트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로만 구성됐다. 가격은 5만3000~6만4000원이다.

농협유통의 자체적 설문조사 결과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 한우는 10만원 초반 가격대에 판매한다. '하나로 한우세트 4호'는 총 2.1kg의 등심, 불고기, 국거리로 구성됐다. 가격은 12만8000원이다.

셰프 컬렉션·효도가전 등 특별 행사

홈플러스 '최현석 셰프 컬렉션'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한가위를 맞아 최현석 셰프 컬렉션·효도가전·세계인이 선택한 슈퍼곡물세트·덕유산 사과 선물세트 등의 다양한 추석 행사와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최현석 셰프 컬렉션'은 최현석 셰프가 엄선한 1++등급 한우 선물세트 3종을 한정 판매하는 행사다. 판매방식은 주문 제작이며 가격은 10만원부터 시작한다.

'효도가전'은 안마의자·발마사지기·어깨마사지기·찜질기 등의 효도가전 품목 8개를 엄선해 기획 특가에 선보이는 상품이다. '세



계인이 선택한 슈퍼곡물세트'는 귀리, 병아리콩, 블랙렌즈콩, 그린렌즈콩 등의 슈퍼곡물 8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4만2000원이다.

할인·상품권… 한가위 맞이 '선물대전'

옥션·지마켓

G마켓(대표 변광윤)은 26일까지 '2015 추석 선물 대전'을 진행하고 선물세트할인, 상품권 증정,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추석 슈퍼딜' 코너를 통해서는 인기 선물세트 2개를 하루동안 파격가에 판매한다.

G마켓이 농협과 함께 단독으로 기획한 '농협 안심 한우한돈 세트'는 한우와 한돈을 혼합한 상품으로 등심, 목살, 국거리, 장조림 등 구성에 따라 2만~10만원대로 구성돼 있다.



옥션 '올킬 슈퍼위크 코너'에서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추석 상품 1개를 선정해 한정수량 특가 판매한다.

18일에는 '법성포 프리미엄 보리굴비세트'(10미)를 58% 할인된 7만5000원에 선보인다.

추석 선물의 모든것 '추석 전용관' 오픈

티몬 '추석 전용관'

티몬(대표 신현성)은 '추석 전용관'을 오픈해 명절에 꼭 필요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추석 선물관'은 가공건강식품과 신선식품, 패션뷰티, 효도가전, 생활용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원하는 선물을 찾아보기 쉽게 구분했다. 또 이달 말까지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5만원 이상 구매 시 8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추석준비 코너'에서는 차량 점검용 제품들과 차례상에 필요한 준비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타이어를 비롯해 엔진오일, 차량필터와 와이퍼 등의 장거리 주행을 위한 소모품들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즐길거리 코너'에는 여행상품과 공연 등의 문화상품을 소개한다.

중저가 실속형 연어·스팸 선물세트

CJ제일제당 'CJ 알래스카 연어'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추석 명절을 겨냥해 '2만~5만원대 중저가'와 '1만~2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늘린 190여 종 720만 세트를 준비했다. 특히 2만~5만원대의 중저가 선물세트와 국내 연어캔 열풍을 이끌고 있는 'CJ알래스카연어'로 구성된 세트를 대폭 확대했다.

CJ는 실제 쓰임새가 많은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한 복합형 선물세트의 비중도 강화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에 실용적이면서도 '진심을 담은' 선물세트를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다.

명절 선물세트 베스트셀러 '스팸세트'는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하며 고급감을 살렸다.

정관장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의 정관은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선물 수요 증가를 대비해 20여 종의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50~60대 부모들에게는 중년 남성과 여성을 위한 '홍천웅'과 '화애락본'을 함께 구성한 '원앙세트'가 제격이다. '홍천웅'은 홍삼과 구기자·황기·복분자 등이 함유됐다. '화애락본'은 홍삼과 여성건강에 도움을 주는 당귀·석류 등의 식물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홍삼 농축액을 간편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홍삼정에브리타임과 홍삼정 타브렛으로 구성된 '현담 세트'는 장소에 상관없이 홍삼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알맞다.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국산 클로렐라

대상 '클로렐라 플래티넘 세트'



대상그룹(대표 명형섭)은 추석선물세트로 1만~3만원대의 연어캔과 참기름 사각캔 등 130종 400만 세트를 선보였다. 대상은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았다.

카놀라유와 요리올리고당, 우리팜델리, 알래스카연어 등으로 구성된 '청정원 8호'는 3만6900원에 선보였다. 카놀라유와 홍초 바이탈플러스, 요리올리고당, 우리팜 델리 등으로 구성된 '청정원 12호'는 2만2800원에 판매한다. 올리브유 재래김과 올리브유 파래김으로 구성된 '재래김 3호'는 1만5900원이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대상웰라이프드 국산 클로렐라 원말 99%와 클로렐라 추출물 분말 1%로 만들어진 '클로렐라 플래티넘 세트'는 17만원에 내놓았다.

클로렐라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리미엄 참치캔·리챔 등 건강 선물세트

동원F&B '동원 추석 선물세트'



동원F&B(대표이사 박성칠)는 한가위를 맞아 참치캔과 연어캔, 김, 홍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된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 종을 준비했다.

특히 올 추석에는 최근 출시한 '동원 건강한 참치' 3종(셀레늄엽산, 오메가369, 저나트륨)이 포함된 선물세트가 새롭게 추가됐다.

고급 연어 어종인 '코호 연어'로 만든 동원연어를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은 프리미엄 연어캔 세트 '동원연어 명작세트'도 선보인다.

동원F&B의 주력 상품인 참치캔 선물세트 외에도 고급 캔햄 리챔으로만 구성된 리챔세트 6호, 들기름김과 카놀라유가 혼합된 양반김 혼합3호 등을 준비했다. 또한 참치회, 와인, 과일, 명품김치상품권, 홍삼 브랜드 천지인과 미국 건강식품 브랜드 GNC 등의 특색있는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한과와 만난 마카롱 '퓨전 한과세트'

SPC '파리바게트'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한가위를 맞아 전통 한과와 퓨전 한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스테디셀러인 품목들을 더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가치를 더했다.

대표적인 선물세트는 오색정과와 월병으로 구성된 마음 담은 전통세트, 국내산 쌀로 만든 전병과 쁘띠만주, 스타볼로 구성된 소망가득 전통세트, 도라야끼·모나카·화과자 등으로 구성한 감사가득 전통세트 등이다.

프랑스 정통 디저트인 마카롱에 떡을 접목한 퓨전 한과도 선물세트로 선보였다. 인절미 찹쌀떡 마카롱과 흑임자 찹쌀떡 마카롱은 개당 1500원으로 원하는 맛의 마카롱을 골라 선물세트로 만들 수 있다.

한가위 맞이 건강식품 특별 할인

한국야쿠르트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는 한진생 홍삼정을 비롯한 홍삼제품군과 천연원료로 만든 브이푸드 비타민 세트를 추석 선물 세트로 추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홍삼 제품군은 정가에서 10%, 브이푸드 비타민 세트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기업은 구매 품목과 관계없이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

지난 1일 출시한 '발효홍삼정이지(EASY)'는 유산균과 효소 2중 발효 과정을 통해 면역 강화 핵심 물질인 기능성 사포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 제품이다.

발효홍삼농축액 100%에 정제수만을 혼합해 진하다.

'품질제일주의' 25년 연속 1등 참기름

오뚜기 '참기름 선물세트'



오뚜기(대표 이강훈)는 실용만점 추석 선물세트 50여 종을 준비했다.

오뚜기의 추천 제품은 '오뚜기 참기름 선물세트'다. 이 선물세트는 2012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고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 연속 시장 1등 자리(AC닐슨 기준)를 지키고 있는 '오뚜기 참기름'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오뚜기 참기름은 3단계 정선과정으로 이물질이 완전 제거된 우량의 참깨를 간접가열방식(Rotary Klin)에 의해 일정하고 정확한 온도에서 태우지 않게 알맞게 볶은 후 3차례의 여과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품질제일주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물 한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주스

웅진식품 '자연은 지중해 햇살'



웅진식품(대표 최승우)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착즙주스 '자연은 지중해 햇살' 선물세트를 비롯한 음료 선물세트 36종을 선보였다.

자연은 지중해 햇살 선물세트는 물 한 방울, 설탕 한 톨도 더하지 않고 지중해산 오렌지와 포도만 그대로 짜서 담은 착즙주스 선물세트다. 1L 들이 오렌지 2병과 포도 1병으로 구성됐다.

장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와 당근, 간 건강에 좋은 적양배추와 레드비트 등 야채와 과일을 배합해 만든 해독주스 '자연은 데일리톡'도 명절 선물세트로 추천할만하다. 데일리톡 종합세트는 1L 들이 브로콜리 2병, 적양배추 1병으로 구성됐다.

산삼·녹용 성분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LG생활건강 '후 천기단 왕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3만원대의 저가 상품부터 65만원대 프리미엄 상품까지 총 9종의 2015 추석 화장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후 천기단 왕후세트'는 산삼옥주, 녹용분골이 배합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정품 6종과 증정 5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65만원 선이다.

'오휘 에이지리커버리 3종 세트'는 아기 피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베이비 콜라겐' 성분을 함유해 주름 개선 효과와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 13만5000원.

'수려한 수(秀) 천삼 스페셜 기획세트'는 추석에 선보이는 특별 한정판 세트다. 사포닌 성분과 신선불로단 처방으로 피부 탄력을 향상시키며 안티에이징 효과를 더해준다. 정품4종과 증정 2종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20만원대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고흐·모네 예술혼 입은 패키지… 품격 차별화

애경 '명화 선물세트'



애경은 추석을 맞아 기업이념인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더해 세계적인 명화와 셀럽을 담은 선물세트를 내놨다.

'희망세트'는 종합선물세트로 어머니와 고국에 대한 애틋한 서정이 담긴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시구를 송은주 작가의 캘리그라피로 디자인했다.

'명화 추석선물세트'는 화가 빈센트 반고흐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을 비롯해 클로드 모네의 '수련',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 바실리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 등을 담았다.

사랑받는 뷰티 아이콘 마릴린 먼로를 디자인에 담은 '마릴린먼로 콜렉션'은 마릴린 먼로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향기를 선물세트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보다 품격있는 선물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도 마련됐다. 농협 한삼인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100% 국내산 6년근 홍삼농축액과 천연씨앗 콤플렉스 처방으로 한방 특유의 기능성을 높인 한방 뷰티브랜드 '현'(賢) 선물세트도 선보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미백·주름·탄력… 피부노화 빈틈없이 관리

아모레 '아이오페'



아모레퍼시픽의 바이오 기능성 브랜드인 아이오페는 피부 노화 현상을 한 번에 케어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슈퍼바이탈 크림 바이오 엑설런트 리치' 기획 세트를 추석 선물로 추천했다.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바이오 셀레티노이드TM'가 피부 건조부터 칙칙함, 잔주름, 탄력 저하까지 도미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피부 노화 현상을 빈틈없이 케어해준다.

또한 피부 활성을 강화시키는 '바이오 글리칸TM'이 피부 깊숙이 영양성분을 흡수시켜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촘촘히 끌어올려 준다.

남성 피부 컨디션 및 노화 고민을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아이오페 맨 2종' 세트도 함께 선보였다.

/염지은 기자 senajy7@

카카오프렌즈 컬래버… 젊은감성 '톡톡'

삼성물산 패션 '빈폴 헤릿백'



삼성물산 패션부문(대표 윤주화)의 빈폴액세서리는 추석 선물로 10~20대 젊은 여성층에게 캠퍼스 백으로 유용한 '헤릿백'을 제안했다.

올 가을 헤릿백은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인 네오(NEO), 어피치(APEACH), 무지 앤 콘(MUZI&CON), 프로도(FRODO) 등의 캐릭터를 절묘하게 조합했다.

컬러 배합은 물론 캐릭터의 특징을 잡아 빈폴액세서리 만의 고유한 브랜드 정체성은 해치지 않으며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살렸다.

구호는 2030 여성을 위한 추석아이템으로 '페도라'를 추천했다.

페도라는 여성스럽고 세련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내추럴한 느낌을 주며 다양한 착장에 활용 가능하다. 캐주얼룩에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포인트를 준다.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시즌에 더 잘 어울린다.

/박상길 기자

피부 본연의 에너지 깨워 자생력 돕는다

암웨이 '수프림 LX'



한국 암웨이(대표 박세준)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리가 추석 명절 맞아 소중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품격 선물로 '수프림 LX(Supreme LX)'를 출시했다.

아티스트리 수프림 LX는 시간, 빛, 에너지를 스킨케어의 3대 핵심 요소로 꼽아 이들에 대한 중점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주요 성분은 가드니아 줄기세포 성분과 24K 순금이다. 가드니아 줄기세포는 혹독한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피부 세포 내 세포막에 존재하는 지질 성분과 유사한 카디오리핀과 아세로라 체리 추출물, 로디올라 복합체 등을 결합해 탄생한 '셀이펙트 24' 기술을 접목했다. 셀이펙트 24 기술은 본래의 피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부스팅해 피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은미 기자

구두·핸드백·골프의류… 패션선물 안성맞춤

금강제화 '금강상품권'



금강제화(대표 김경덕) '금강상품권'은 전국 130개 도시 400여 개 매장에서 구두, 캐주얼화, 핸드백, 골프 의류, 아웃도어 의류, 신사복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금강상품권은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선물로는 리갈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사화와 브루노말리 엔리코 가방이 추천됐다. 리갈 고어텍스 서라운드는 신발 외피에는 고급 소가죽을 사용하고 내피와 편칭 처리된 바닥창에는 방수·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멤브레인 소재를 적용해 쾌적함이 유지된다.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르느와르 스튜디오의 아베스 펌프스가 추천됐다. 고급스러운 이태리 수입 가죽으로 만들어진 아베스 펌프스는 깔끔한 디자인에 미러 콤비가 시크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해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착장에 포인트로 매치가 가능하다.

/박상길 기자

진한 과즙·부드러운 속껍질…과일 통째 '꿀꺽'

코카콜라 '미닛메이드세트'



코카콜라의 주스 음료 브랜드 미닛메이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미닛메이드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홈스타일세트는 진한 과즙과 부드러운 과일 속껍질이 들어있어 과즙과 과일 속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자몽' 2개,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오렌지100' 2개가 한 세트다.

프리미엄세트는 미닛메이드의 대표 제품인 오렌지 과즙 100%의 '오리지널 오렌지 100', 포도과즙 100%의 '오리지널 포도 100', '미닛메이드 알로에', '미닛메이드 망고'가 각 1.5ℓ 페트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됐다.

알뜰세트는 풍부한 과즙의 맛과 향을 알뜰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선물세트로 1.5L들이의 '미닛메이드 오렌지' 2개, '미닛메이드 포도' 1개, '미닛메이드 알로에' 1개가 한 세트다.

/정은미 기자

아웃도어로 건강 선물·보상판매로 실속 쇼핑

LF '라푸마'



LF(대표 구본걸)의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는 추석을 맞아 30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와 보상판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추석선물 세트로는 프로텍션 재킷(남성용), FX 라이트핏 트레킹화, 익스플로러 트래블 재킷(여성용)을 제안했다.

가을 신상 티셔츠와 바지, 등산화, 배낭 등 4가지의 지정 상품 중 2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일부 할인 금액이 적용된다. 라푸마는 사용하던 아웃도어 제품을 반납하면 신상품 구매시 현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보상판매'도 실시한다.

보상판매제품군은 고어텍스, 윈드스토퍼자켓 일부와 등산화, 배낭 전 상품이다.

금액대별로 10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20만원 이상 구매시 4만원, 30만원 이상 구매시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깊은 향·풍부한 맛… 71년 전통의 차례주

롯데주류 '백화수복'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71년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백화수복'은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우리 술이다. 국내 차례주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다.

쌀의 외피를 30% 깎아내 정성껏 빚어 만든 '백화수복'은 특유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명절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소비자들이 편의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700㎖, 1ℓ, 1.8ℓ 등 3가지 용량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급 수제 청주인 '설화'는 최고 품질의 쌀을 52%나 깎아내고 특수효모로 장기간 저온 발효해 청주특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술로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기품있는 선물로 그만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1만원대 중저가… 한가위 풍성한 정나눔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주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국내 1등 주스 브랜드 '델몬트 주스 설 선물세트'는 9000원대부터 1만3000원대의 부담없는 중저가 세트로 명절 분위기를 담은 고급스러운 포장재를 사용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만족을 준다.

다양한 구성의 프리미엄 주스를 넉넉한 1ℓ 용량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사과 3본입 세트'와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제주감귤 3본입 세트', 제주감귤 100%를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주스 3본입 세트' 등 3종으로 구성됐다.

1.5ℓ 페트는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을 살려 포장재를 고급스럽게 꾸민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상자에 담긴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 2종이 있다.

/정은미 기자

우리네 예법 그대로 빚은 순수 발효주

국순당 '예담'

국순당(대표 배중호)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우리 술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차례전용 술 '예담'은 명절에 꼭 필요한 차례주로 선물 받는 분의 만족도가 높은 명절 최고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전용주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주다.

'예담 차례주'는 전통 발효주 특유의 연한 황금빛 색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사과와 배향의 과실 향과 발효주의 부드럽고 적당히 풍부한 맛이 조화를 이뤄 시각·후각·미각을 모두 만족시킨다.



'본초' 선물세트는 복분자, 상황버섯, 인삼 등 좋은 국산 재료를 각 약초마다 가장 적합한 제법으로 빚어 향과 맛이 풍부한 전통주로 구성됐다.

본초 복분자주는 고창산 1등급 복분자를 원료로 단발효법을 사용해 빚었다. 본초 상황버섯주는 국내산 상황버섯과 아카시아 꿀을 원료로 혼양주조법을 적용했다. 본초 인삼주는 국산 인삼을 침출법으로 좋은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침출·숙성시킨 고급술이다.

/정은미 기자

참나무통에서 10년 숙성시킨 원액 100%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추석을 맞아 일품진로 선물세트와 35종의 와인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일품진로(375㎖) 2병과 스트레이트잔 2개, 언더락스잔 2개로 구성됐다. 일품진로는 참나무통에서 10년 이상 숙성시킨 원액 100%를 그대로 사용하는 고품격 소주다. 증류식 소주만의 부드러운 맛과 목넘김, 은은한 향, 숙취가 깔끔함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와인 선물세트는 국내외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럭셔리 와인세트'부터 좋은 품질의 포도로 만든 '백악관 만찬 와인'까지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단품·혼합형 세트로 구성된 와인세트 35종을 선보였으며 가격대는 5만원부터 43만원까지다.



/정은미 기자

호텔 셰프가 제안하는 로맨틱 디너

스탠포드 호텔 '월드 스테이크'

스탠포드 호텔(총지배인 왕장근)이 올 추석과 가을을 맞아 특별한 스테이크인 '월드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월드스테이크는 스탠포드 호텔 '맨하탄 그릴&바'에서 호텔 셰프가 직접 선사하는 디너(저녁)로 총 3가지 스타일로 구성됐다.

A코스는 어린잎, 프리세 샐러드를 곁들인 꽃등심 스테이크와 포트 와인 소스로 구성된 '이탈리안 스타일'이다.

B코스는 볶은 버섯 발사믹 어니언을 곁들인 꽃등심 스테이크와 보르노레즈소스로 구성된 '프렌치 스타일', C코스는 으깬감자·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꽃등심 스테이크와 그린페퍼콘소스로 차린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월드 스테이크 프로모션은 6만9900원(VAT포함)으로 3가지 코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맛 볼 수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

갱년기 한방치료, 모든 환자에게 무난

닥터 Q&A

Q. 갱년기 한방치료,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가요?



나영철 대표원장 (황금사과한의원 갱년기클리닉)

-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병리학 전공)
-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 ~현재)

A. 여성들이 갱년기에 겪는 안면 홍조, 열감, 우울감, 피로감, 관절 통증 등은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방식이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환자의 병력에 따라 적용에 제약이 생긴다. 유방암이나 자궁근종 등 특이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투여하면 질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여할 시 크고 작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한약을 통한 갱년기 치료는 치료 대상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넓은 범위의 환자들에게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호르몬제 투여하는 방식 유방암 등 병력엔 재발 우려

한방선 '신체 불균형' 치료 초점 모든 환자에 별다른 제약 없어

한방 갱년기 치료가 치료 대상에 제약이 없는 것은 갱년기의 근본적 원인인 '신체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갱년기의 근본적 원인은 호르몬이 부족한 것 자체라기 보다는 호르몬 급감으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이다.

한방에서는 갱년기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과 함께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으로 오장육부와 신체 각 기능을 조화롭게 회복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약물치료 없이도 효과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치료 대상에 제약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는 한약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몸의 뜨겁고 찬 기운을 조절, 신체 불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갱년기 증상들을 다스린다. 특히 필자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이런 염려가 없다.

특수 균주를 통한 발효 과정과 폭기(순간적으로 공기를 주입해 천연 물질의 독성이나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방법)과정을 거치는 나노생한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생한약은 약재의 입자가 소장벽을 통과할 정도로 작은 나노입자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독성이 없어 부작용 우려도 없다. 또한 데우는 과정 없이 실온 상태에서 음료형태로 마실 수 있고 쓴 맛도 없어 복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다.

각각의 병증마다 약재 종류를 달리해 처방하는 나노생한약 중 갱년기 치료에는 황춘탕(黃春湯)을 쓴다. 황춘탕은 육계(계피)와 황련을 주재료로 하며 체내 열을 다스리고 심신을 안정시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녀환자 누구에게나 처방이 가능하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질환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염려가 없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star bag




BIFF 마무리 장식

배우 **박성웅**, **추자현**이 다음달 10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폐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관객들이 믿고 보는 배우, 그리고 아시아 대표 스타로서 선정됐다.



日 걸즈 엑스포 출연

걸그룹 **에이핑크**가 오는 11월 1일 일본 오사카 인텍스에서 열리는 '재팬 걸즈 엑스포 2015 가을'에 출연한다. 여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체험 이벤트로 한국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것은 에이핑크가 최초다.



MTV EMA 후보 올라

걸그룹 **여자친구**가 MTV 유럽 뮤직 어워드(MTV EMA) 한국 최우수 가수 부문 후보에 올랐다. 여성그룹으로는 유일한 후보다. 그룹 B1A4, 빅스, 방탄소년단, 갓세븐과 함께 상을 놓고 경쟁한다.

뮤지컬 첫 공연 마쳐



가수 **윤하**가 뮤지컬 '신데렐라'의 첫 공연을 마쳤다. 윤하는 지난 16일 뮤지컬 '신데렐라'의 초연 무대에서 주인공 신데렐라 역으로 완벽한 노래와 연기를 선보였다. 커튼콜에서는 눈물로 감사를 전했다.

나눔 있는 콘서트



그룹 2PM 멤버 **준호**가 오는 19일, 20일 올림픽공원에서 나눔이 있는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월드비전 홍보대사이기도 한 준호는 이날 공연에서 아동후원부스를 운영하고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콤플렉스? 저는 평범한 서민인 걸요

영화 '사도'

송강호



사극 영화하면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웅장한 세트, 화려한 의상과 미술 등의 볼거리가 그렇다. 그러나 '사도'(감독 이준익)는 그런 볼거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는 팩션이 아닌 고전적인 정통 사극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배우들의 연기가 오롯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심에 바로 송강호(48)가 있다.

'사도'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임오화변을 다룬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채 죽게 한, 역사 속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돼 있는 사건이다. 이준익 감독은 임오화변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관계로 접근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송강호가 '사도'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임오화변을 정공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영화 속에서 송강호가 연기하는 영조는 고독한 왕이다. 모두가 우러러 보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과 콤플렉스로 가득하다.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 속에서 영조는 어떻게든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애쓴다.

송강호는 "영조대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실제 역사 자료를 접하면서 영조가 처한 상황과 심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독한 영조의 인생이 영화에 묻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걸음걸이와 목소리에도 변화를 줬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미화나 왜곡 없이 역사에 기록된 그대로 영조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작품에서는 단 한 마디도 애드리브가 없었다"는 그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영조가 인원왕후(김해숙)와 대립하는 장면을 좋아해요. 그때 유일하게 영조의 과거가 보이더군요. 친모가 아닌 인원왕후에게 윤허를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는 영조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영조가 갈구한 것은 수많은 사대부 앞에서 떳떳한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조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좋아합니다."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는 영화인만큼 연기하는 재미가 남달랐을 법하다. 송강호는 "아무래도 다른 작품에 비하면 연기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송강호의 열연이 영화 속에서 그만큼 빛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준익 감독의 공으로 돌렸다. "화려한 미장센처럼 연출자로서의 예술적인 터치보다 인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준익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깊은 콤플렉스를 지닌 영조처럼 배우 송강호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저는 왕도 아니고 일반 서민이기 때문에 그런 콤플렉스는 없다"며 호탕한 웃음을 보였다. 스크린 속에서는 변화무쌍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도 일상에서는 여느 아버지와 다를 것 없다. "아들은 경상도 사람인 나의 무뚝뚝함을 닮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런 친근함을 엿볼 수 있었다. '사도'에 이은 차기작은 김지운 감독의 신작 '밀정'(가제)이다. 송강호는 "'사도' 전까지 쉬었으니 웬만하면 다시 작품을 쉼 없이 하고 싶다"고 전했다.

> 정공법으로 다룬 임오화변
> 영조의 콤플렉스 깊이 이해
> 연기의 맛 남달랐던 작품
> 쉼 없이 영화 작업하려고 해 ”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지브리,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

'이웃집 토토로' '추억은 방울방울' BIFF 상영



일본 애니메이션 명가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매해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아시아 영화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스튜디오 지브리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1985년에 설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다. 그동안 세계 애니메이션계에서 유일무이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영화제 측은 "스튜디오 지브리는 수년 간의 긴 제작기간을 거쳐 발표하는 애니메이션마다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 제작 환경의 안정적 제도를 마련하고 후계자 양성에 노력하는 등 애니메이션 발전에 모범을 보여왔다"며 "환경보호와 평화, 어린이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 등으로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을 기념해 영화제 기간 중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 '이웃집 토토로'와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대표작 '추억은 방울방울'을 상영한다. 시상식에는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인 스즈키 토시오가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제 개막 전인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작 18편도 상영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전쟁서 스러진 군사들의 恨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개막작
오페라 연출가 이소영 첫 창극 作 '적벽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호방하고 선 굵은 소리로 사랑받아온 '적벽가'가 창극으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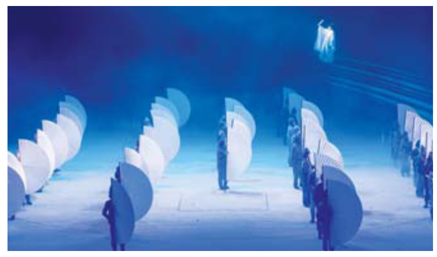
국립창극단은 정통 판소리의 묵직한 품격을 모던하게 펼쳐낸 '창극 적벽가'를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개막작으로 1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무대에 올린다.

독특한 미장센과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아온 한국 여성 오페라 연출가 1호인 이소영의 첫 창극 연출작이다.

자신의 장기인 세련되고 현대적인 무대 위에 오직 '소리'만을 중심에 놓은 이소영 연출은 영웅들의 쟁패 뒤편에서 스러진 이름없는 백성들에게도 시선을 던진다. 이 시대의 신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작창과 도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의 예능보유자인 송순섭 명창이 맡았다.

음악은 김주현 감독과 협력작곡가 홍정의가 호흡을 맞췄다. 전통악기와 양악기, 이국적 타악기를 조화시켜 선율을 배제한 전혀 새로운 음악이다.



적벽가 중 적벽대전 장면. /국립극장

안무가 박호빈은 모던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정서가 물씬 깃든 움직임을 더했다. 특히 전쟁 장면을 격정적이면서도 우아하게 표현해낸다.

극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며 다양한 시공간을 만드는 거대한 부채 구조물을 활용한 간결하고 상징적인 무대는 김현정 무대디자이너의 솜씨다.

조명은 대극장 뮤지컬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이우형 디자이너가, 영상은 추봉길 디자이너가 맡았다.

의상을 맡은 이재희 디자이너는 동양적인 의상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상을 통해 적벽가의 이야기가 박제된 옛 것이 아닌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인간군상의 것임을 상기시킨다.

'적벽가'는 중국 고전소설인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중 한 사건인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다. 다섯 바탕 중 유일하게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19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판소리 사설이 정립되면서 한국적인 정서가 스며들었다. 백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유비, 의리를 지키는 관우 등 용맹있는 장수 캐릭터를 강조하며 당대 민중이 바라는 영웅의 상을 부각했다.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해 달아나는 도중 길가의 메추리 날아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고 장비를 닮은 장승을 보고 기겁하는 등의 골계적인 인물로 그렸다. 조조의 부하 정욱은 권력자의 약한 모습을 꼬집으며 풍자하는 방자형 인물로 등장해 판소리적 재미를 더한다.

전투 전날 군사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군사설움타령', 전사(戰死)한 군사들이 새가 되어 조조를 탓하며 부르는 '새타령' 등의 대목이 추가돼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다.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8세 이상 관람가, 2만~7만원. 문의 (02)-2280-4114~6.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판소리 명가 '정순임의 흥부가' 국립극장 완창 시즌 첫 무대



정순임(74·사진) 명창이 부르는 박록주제 '흥부가'가 한 달에 한 번 듣을 수 있는 황홀한 소리 한마당인 국립극장의 '완창판소리' 첫 번째 무대에 오른다. 정 명창의 '완창판소리'무대는 2010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부가' 예능보유자인 정 명창은 2007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판소리 명가 1호'의 3세대다.

1세대인 큰외조부는 고종황제로부터 혜릉참봉의 교지를 받았던 장판개 명창이다. 2세대는 천재 명창으로 불렸던 외숙 장영찬과 어머니 장월중선 명창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박송희로부터 사사받은 박록주제 '흥부가'를 부른다.

19일 오후 3시 공연, 8세 이상 관람가, 전석 2만원. 문의 (02) 2280-4114~6. /염지은 기자

TV 하이라이트

국내 최초 재난드라마

◆ JTBC '디데이'

금요일 오후 8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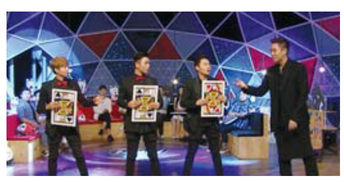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외과의 이해성(김영광)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성 있는 환자를 우선 치료하라는 원장(이경영)의 지시를 무시하고 치사율이 90% 이상인 환자를 우선 치료한다. 간호사 박지나(윤주희)는 응급차 안에서 위기를 맞은 환자를 위해 초보 레지던트 정똘미(정소민) 대신 응급처치를 시도한다. 이에 외과의 부교수 한우진(하석진)은 주제넘은 행동이라며 지나를 타박한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MBC '세바퀴'

금요일 오후 10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은 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면서 원래 꿈이 코미디언이었다고 고백한다. 롤모델이 신동엽이라는 그는 "영상을 보면서 연구까지 했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다.



◆ KBS2 '인간의조건-도시농부'

금요일 오후 10시50분

걸그룹 씨스타 보라와 소유가 옥상 텃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고추와 대추 등을 키웠다며 능숙하게 당근과 꽃 등의 작물들을 심는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태남매는 아빠 리키김의 고향 하와이로 '뿌리찾기 여행'을 떠난다. 하와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섬인지 알아보기 위해 헬리콥터 탑승 체험에 나선다. 실제 용암이 흐르는 활화산을 구경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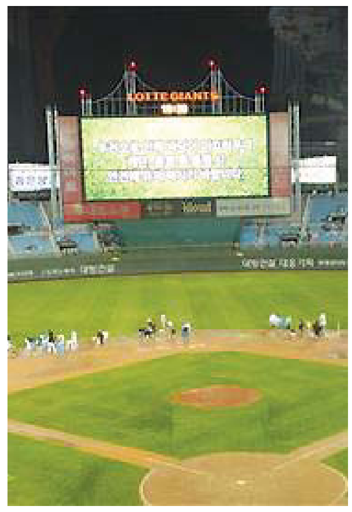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19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15:00 2015 K리그 클래식 17:00 KBS 뉴스 17:1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18:00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라이프 스토리 22:35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3:45 특집 콘서트 7080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2:2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3:25 개그 콘서트 (재) 15: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50 별난 며느리 (재)	11:00 2015 메이저리그 피츠버그:LA다저스 14:40 내 딸, 금사월 (재) 15:40 MBC 뉴스 15:50 쇼! 음악중심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50 접속! 무비월드 12:10 미세스캅 (재) 14:30 런닝맨 (재) 15:40 SBS 뉴스 15:50 아빠를 부탁해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00 SBS 8 뉴스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1000회 특집 그것이 알고싶다 24:15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0:10 디데이 (재) 11:30 비정상회담 (재) 13:00 JTBC 뉴스 13:20 썰전 스페셜 14:3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5: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7:10 비정상회담 (재) 18:30 디데이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박스 24:25 디데이 (재)	10:00 아침엔 매일경제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40 속풀이쇼 동치미 스페셜	11:00 두번째 스무살 (1회·재) 12:30 두번째 스무살 (2회·재) 13:50 두번째 스무살 (3회·재) 15:10 두번째 스무살 (4회·재) 16:30 두번째 스무살 (5회·재) 17:50 두번째 스무살 (6회·재) 19:10 두번째 스무살 (7회·재) 20:30 두번째 스무살 (8회) 21:40 집밥 백선생 (재) 23:00 슈퍼스타K7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올리브쇼 2015 14:10 비법 15:20 오늘 뭐 먹지? 16:20 2015 테이스티로드 17:20 올리브쇼 2015 18:30 두 남자의 캠핑쿡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오늘 뭐 먹지?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24:00 비법
20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KBS 슈퍼클래식 16:05 청년,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다 (재) 17:10 KBS 뉴스 옴부즈맨 17:40 열린음악회 19:10 법원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라이프 스토리 22:35 역사저널 그날 23:25 취재파일 K 24:0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5 영화가 좋다 (재)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그녀는 예뻤다 (재) 15:35 MBC 뉴스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한중공동기획 2015 신한류시대	09:30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재) 12:00 SBS 뉴스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용팔이 (재) 15:30 SBS 뉴스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00 SBS 8 뉴스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자기야-백년손님 (재)	10:20 디데이 (재) 1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비정상회담 (재) 15:5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7:10 유자식상팔자 스페셜 18:3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1:45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4:00 박스 (재)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4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24:40 아궁이 (재)	11:4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20 두번째 스무살 15:4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집밥 백선생 (재) 18:20 수요미식회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30 문제적 남자 24:00 처용 2 (재)	10:30 올리브쇼 2015 11:40 비법 13:0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16: 10 올리브쇼 미니 NEW 16:40 마스터셰프 코리아3 더 레시피 17:10 노 오븐 디저트 2 18:10 오늘 뭐 먹지? 19:20 비법 20:4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2:00 올리브쇼 2015 23:20 오늘 뭐 먹지? 24:00 언제나 칸타레2

흑인 선수, 범죄자로 오인해 체포한 경찰

스포츠 주간 해프닝



제임스 블레이크(왼쪽)가 10일(한국시간) 뉴욕경찰에게 오인체포 되고 있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됐다.



비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자 롯데의 모든 선수와 직원들이 그라운드로 나와 물을 빼내고 있다.



자신이 친 파울볼에 맞아 부상해 교체된 두산 베어스의 데이빈슨 로메로.

미국의 흑인 테니스 선수 제임스 블레이크(36)가 뉴욕경찰로부터 범죄자로 오인돼 수갑을 찼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블레이크는 지난 10일(한국시간) 뉴욕 시티호텔 인근에서 US오픈 테니스 대회장소로 가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와 같은 봉변을 당했다. 백인 경찰 5명이 배지도 없는 상태로 갑자기 달려와 블레이크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아무 말도 하지말라고 윽박질렀다.

경찰은 15분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잘못 체포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갑을 풀어줬다. 블레이크는 개인정보 도용 범죄조직원으로 오인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 블레이크는 경찰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체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인종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다"라며 뉴욕 경찰을 두둔하면서도 일침을 가했다.

물에 빠진 경기 살리기

롯데 자이언츠가 11-2로 대승한 지난 12일 부산 사직구장 한화 이글스전. 승리의 숨은 공신은 따로 있었다.

이날 경기는 비 때문에 경기 시작 시간이 32분 늦춰졌다. 롯데가 8-0으로 크게 앞선 3회말 2사부터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 롯데로서는 다 잡은 승리를 코앞에서 놓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더군다나 5위 싸움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한화와의 일전이었다.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경기였다.

다행히 경기 중단 30분 후인 오후 7시 14분부터 빗줄기는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방수포는 걷어졌고, 이때부터 경기를 재개하기 위한 롯데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됐다.

내야에 흥건히 고인 물을 빼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총동원됐다. 구장 경호직원, 사무실 직원, 외국인 선수 통역, 백업 포수까지 참여해 관중의 힘찬 응원 속에서 물빼기에 돌입했다. 헌신적인 물빼기로 내야에 마른 흙이 덮였고 마침내 경기가 재개됐다.

자신이 친 공에 맞아 교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타자 데이빈슨 로메로가 자신이 친 파울 타구에 왼쪽 무릎을 맞아 경기 도중 교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로메로는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계속된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5로 맞선 5회말 2사 1,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투수 이성민을 상대로 4구째에 방망이를 크게 휘둘렀다.

그러나 타구는 애석하게도 보호구가 없는 로메로의 왼쪽 무릎을 강타했다.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한 로메로는 결국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손흥민·이청용 첫 '코리안 더비' 맞대결



20일 영국무대에서

손흥민(토트넘·사진)과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이 영국 무대에서 첫 코리안 더비를 가질 예정이다.

토트넘은 오는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지난 13일 선덜랜드와 EPL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이청용도 개막전 이후 교체로 나서고 있어 맞대결이 예상된다. 둘은 팀의 좌우 날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볼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팀에서는 친한 형과 동생이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약 400억원에 데려왔지만 데뷔전에서 기대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루빨리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청용도 이번 시즌 교체로 10여분 가량만 출전했다. 팀에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드러내야 한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강정호 사이영상 후보에 한판승

추신수, 카이클 완벽 공략
강정호, 아리에타 상대로 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사이영상 후보에 오른 투수들을 상대로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추신수는 17일(이하 한국시간) 휴스턴과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4타수 3안타, 3득점을 수확했다. 타율은 0.261(490타수 128안타)로 올랐다. 시즌 득점은 77개로 불었다. 15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추신수는 첫 타석부터 올해 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평가받은 댈러스 카이클을 공략했다. 직구를 받아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5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카이클의 슬라이더를 2루타로 만들었다.

텍사스는 14-3으로 완승을 거뒀다.

강정호는 같은날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 4연전 3번째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8에서 0.287(421타수 121안타)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내셔널리그의 사이영상 후보인 제이크 아리에타를 상대로 안타를 뽑아내면서 타격감을 이었다. 피츠버그는 연장 12회 혈투 끝에 컵스에 2-3으로 패했다.

/하희철 기자



수원 염기훈(왼쪽), 서울 박주영. /연합뉴스

수원 vs 서울 '슈퍼매치' 격돌

2위 수성 vs 상위 스플릿 잔류 치열한 순위 경쟁으로 부담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는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과 FC서울이 두배의 부담을 안고 그라운드에 나선다.

수원과 서울은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세 번째 슈퍼매치다.

K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대결인 슈퍼매치지만 이번 경기는 더욱 특별하다.

수원은 현재 승점 54점(15승9무6패)으로 선두 전북 현대(62점)에 8점 뒤진 2위에 랭크돼 있다. 격차가 있지만 아직 우승 목표를 접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슈퍼매치에서 패배하면 우승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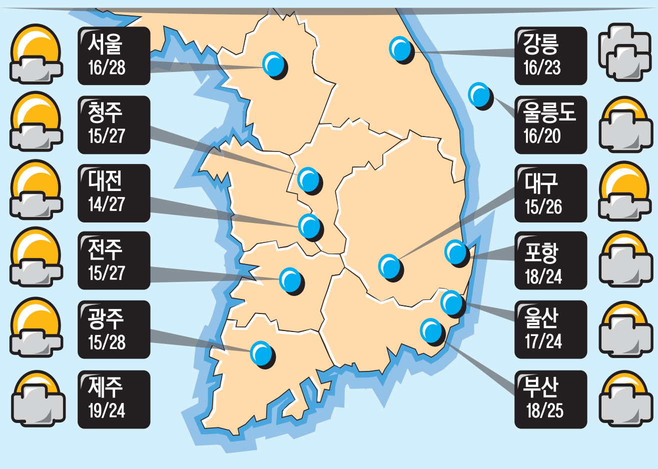
서울은 상황이 더욱 절박하다. 현재 3위 포항부터 8위 제주까지 승점차가 고작 7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3위에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패배하면 추락할 수도 있다. 33라운드 이후 하위 스플릿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팀 분위기는 수원이 서울보다는 앞서있는 상황이다. 수원은 지난 12일 인천을 1-0으로 꺾었지만, 서울은 최근 1무2패로 주춤한 상태다. 올 시즌 가졌던 경기에서도 수원이 1승1무로 우세다. 4월 18일 열린 시즌 첫 슈퍼매치에서는 수원이 서울을 5-1로 대파하기도 했다. /하희철 기자

날씨

9/18 금 일출시각 06:16 일몰시각 18:3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5	6	7		8
		7		8		1		
		6					9	
				4	9			
	5		7		1		4	
			8	3				
	6					2		
		3		7		4		
7		5	4	6		8		1

	4							
2		6			8			
	7	9	2		3			6
	6	3		5				
	8	1	6		4	9	3	
				8		1	6	
5			9		7	3	2	
			8			6		4
							9	

스도쿠 정답

1	3	4	9	5	6	7	2	8
9	2	7	3	8	4	1	5	6
5	8	6	2	1	7	3	9	4
3	7	1	6	4	9	5	8	2
8	5	9	7	2	1	6	4	3
6	4	2	8	3	5	9	1	7
4	6	8	1	9	3	2	7	5
2	1	3	5	7	8	4	6	9
7	9	5	4	6	2	8	3	1

8	4	5	1	9	6	2	7	3
2	3	6	5	7	8	4	1	9
1	7	9	2	4	3	5	8	6
9	6	3	7	5	1	8	4	2
7	8	1	6	2	4	9	3	5
4	5	2	3	8	9	1	6	7
5	1	4	9	6	7	3	2	8
3	9	7	8	1	2	6	5	4
6	2	8	4	3	5	7	9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How about bangs?

A: Hey. Where r u?

B: At the hair salon.

A: Getting a perm?

B: Nope. I got that done last week. Remember?

A: Whoops! Now I remember.

B: My husband is picking on me about my new hairdo. >:(

A: Um, ur hair looked good in the pic.

B: Photo filter did the magic. ;)

A: Really?

B: Really really. So what should I do to look younger?

A: **How about bangs?** It'll take 10 years off of you.

앞머리 자르는 게 어때?

A: 안녕. 어디야?

B: 미용실에.

A: 파마하는 거야?

B: 아니. 지난 주에 했잖아. 기억해?

A: 앗! 이제 기억났어.

B: 남편이 새로 한 머리 땜에 생트집이야.

A: 사진에선 이쁘던데.

B: 앱발이었어.

A: 진짜로?

B: 진짜진짜로. 나 어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앞머리 자르는 게 어때?** 10년은 어려 보일걸.

* r u: are you의 인터넷 약자
* ur: your의 인터넷 약자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출산 앞둔 워킹맘… 이직하고 싶은데 고민
일단 육아에 치중… 복직 후 제자리잡기 노력

네입사랑 여자 83년 10월 20일 17시

Q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일한지 5년 지났습니다. 직장과 출산 문제로 너무 고민이 됩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육아휴직을 쓸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육아휴직을 써도 사람을 구하지 않고 제가 다시 복직해도 지금 제자리로 다시 복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하고 좀 일하다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걱정이 됩니다. 출산 후 아기 키우는 것도 걱정이 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의 조언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진심어린 상담신청에 감사드리면서 그러기에 더욱 잘 들어 주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사주팔자와 운의 관계는 사주의 정해진 기본 원국(原局)으로서 숙명적인 것으로 내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운(運)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주구조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운이 오는 것을 보고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이 사주상담을 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것은 사계절의 변화도 운(運)이므로 계절에 따라 복장이나 생활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마다 오는 대운(大運)은 사주 원국(原局)이 10년간 받는 대체적인 큰 환경이며 세운(歲運)또는 연운(年運)은 매년마다 영향을 끼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내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환경이 변화되었듯이 변화되는 운에서 또한 시간이 흘러 나는 이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귀하의 자리가 남아 있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 운이 크게 승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복직을 하여 제자리를 잡는 것에는 운이 약 합니다. 그러므로 이직은 접어보고 제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먼 훗날의 기약은 그때그때 하며 순리대로 현재는 육아를 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동안 나의 테두리였던 곳에서 이직보다는 귀하 자신의 역량과 그릇을 키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성정은 '쇠가 불에 녹아 물이 되는 형상'으로 겉으로는 강기(剛氣)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여린 구석이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금기(金氣)가 분기(奮氣)하는 때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허리 질환을 항상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8일 (음 8월 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욕구를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생**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72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 입니다.

소 **49년생** 귀하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61년생**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73년생** 당신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85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호랑이 **50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62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74년생** 상대는 귀하보다 한수 위 입니다. **86년생** 반드시 행운이 찾아 올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적당주의는 금물입니다. **63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75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87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용 **52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64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76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8년생**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뱀 **53년생** 큰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65년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7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89년생** 모든 일을 자제하세요.

말 **54년생** 흉한 인간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길합니다. **66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8년생**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90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양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 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길합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닭 **57년생**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언행일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81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반가운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개 **58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도 불사해야 합니다. **70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82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94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돼지 **59년생**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포털뉴스 정치권 논란 벗어나려면 알고리즘 공개해야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포털의 편향적 뉴스편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포털 뉴스 표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많지 않다.

새누리당은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으로 뉴스를 편집해 선정성은 물론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대선을 앞둔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털을 둘러싼 공방은 첨예해 보이지만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디테일한 지적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동안 포털은 뉴스 목록을 편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년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그때뿐이다.

포털 뉴스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악용되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든지, 막대한 광고 집행 액수를 무기로 한 대기업에게 휘둘려 비판기사를 내놓는 언론사를 검색에서 배제해 재갈을 물린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에 휘둘리거나 이용해 바람막이로 삼을 수도 있다.

정치권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포털의 편집 원칙이 '블랙박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를 둘러싼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편집하거나 게재하는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좋은 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계약 맺은 매체의 뉴스만 나온다. 구글은 구글 뉴스 제휴 신청을 하면 웹페이지 관리자가 '가이드 라인'에 맞는지 확인 후 공개한 기준에 부합하면 검색 되도록 한다. 국내 포털보다 소규모 매체에 열려있는 구조다.

구글은 13개의 자체 평가 기준을 갖고 언론사를 평가해 뉴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포털과는 확연이 다르다.

구글의 뉴스 순위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뉴스 생산량, 뉴스 길이, 방문자 수와 트래픽, 기자와 편집실의 규모, 뉴스의 해외 도달율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다. 기계에 문제를 삼으면 모를까 공정성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반면 한국의 포털은 불분명한 기사 표출 기준 때문에 이맘때면 비판을 받는다. 상위권에 노출되는 매체의 선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언론매체를 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하루빨리 구글처럼 뉴스편집 알고리즘을 기계화 시키고 원칙을 공개해 매년 불거지는 정치권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최근 일부 권력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일부 권력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산업부장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기자 수첩
장 병 호
<생활문화부>

최근 한 이동통신 광고를 보면서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일에 쫓기는 직장인을 위해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였다. 광고는 마치 빠른 속도가 일의 무게를 덜어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속도에 대한 강박이 일의 무게를 덜어주기는커녕 더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빠른 속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늘 속도에 치이는 삶을 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터지는 이슈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빨리 잊는다.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중문화는 인스턴트처럼 소비된다.

특히 가요 시장에서의 속도 경쟁은 유난히 심하다. 가수들이 10곡 이상을 빼곡하게 채운 앨범이 아닌 5~6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 혹은 싱글로만 주로 활동하는 이유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티저'라는 이름을 단 자료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이유다. 정작 가수들의 활동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가요 시장이 인스턴트처럼 음악이 소비되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가요 행사를 취재하다 보면 10대 시절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기 위해 동네 레코드 가게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떠오른다. 앨범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 레코드 가게를 찾아가 언제 앨범이 들어오는지 물었던 기억 말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앨범을 손에 쥐면 테이프든 CD든 닳고 닳을 때까지 들었다. 북클릿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음악을 듣는 것, 그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때가 있었다. 그 즐거움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얼마 전 책 '타임 푸어'를 읽다 무릎을 쳤다. 현대 사회가 바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꼬집는 내용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빠른 속도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 이유일 것이다. 대중문화도 인스턴트 식으로 소비되지 않는 방향은 없을까. 누군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대변인 신봉삼

◇전북 전주시 △5급 승진▷자치행정과 엄익준

◇KBS ▷TV본부 드라마국 CP 최지영▷TV본부 드라마국 CP 배경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파견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파견 이진광

◇고려대 △세종캠퍼스 ▷기획처장 이긍원 ▷교학처장 김갑년▷사무처장 김차용▷입학홍보처장 진서훈

◇충북 진천군 △5급 승진 내정▷행정과 노종호·이미숙 ▷농업지원과 김태학△6급 승진 내정▷보건소 임종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치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임지현

◇행정자치부 △실장급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고위공무원 한경호 △국장급 ▷정부청사관리소장 고위공무원 유승경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이상길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김종효 △과장급▷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서기관 전한성

부고

▲구교석 씨 별세, 충곤(전남 화순군수)씨 부친상 = 17일 오전,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발인 19일. ☎ 061-379-3007, 010-3666-8393

▲최순애씨 별세, 박종문(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형문(장흥군청 재무과)·일문(I&H 이사)·송해(삼성생명FC)·난해(수원 흥덕고 교사)씨 모친상, 김경수(KT팀장)·강기추(군포 교육지원청 장학사)씨 빙모상 = 16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18일 ☎ 02-3010-2000

社說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해야

지난 14~15일 국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합병비율은 1대0.46이었다고 한다. 이는 삼성이 설정한 1대0.35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병안 찬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국민연금이 스스로 산정한 비율이 이와 같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제시한 합병비율에 대해 국민연금은 당연히 반대했어야 했다. 아니면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찬성했어야 했다. 국민이 맡겨놓은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런 과정도 없이 찬성해 버렸으니 책임을 망각하거나 월권한 일이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문제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열람만 허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체 산정 합병비율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억측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리가 있는 논리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냉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국민의 관심이 컸던 사안은 논의 과정과 이유를 지금이라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스스로 산정한 합병비율을 왜 무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설명방법이다.

더욱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주총이 열리기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사람들을 만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자리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가을 기미, 집에서 해결하자

생활건강

가을철 피부노화 주의보가 내려졌다. 여름동안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된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선선해진 날씨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를 소홀히 하면 순식간에 피부노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쌀한 초가을이라고 해도 낮시간의 경우에는 햇빛 노출 시간 40분을 넘으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여름만큼이나 자외선 차단과 피부 색소침착 관리가 중요하다. 한번 생기면 피부가 칙칙해보이고 노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피부 색소침착, 혼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올바른 홈케어 방법을 소개한다.

▲미백화장품은 예방목적으로

흔히 기미와 잡티 등의 색소침착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 미백용 화장품이나 천연팩이 있다. 하지만 미백 화장품은 눈에 띄는 피부 색소침착 제거 효과보다는 평소 피부톤을 밝게 유지하며 색소가 생기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계란흰자, 레몬, 해조류 등의 천연재료를 이용해 미백팩을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피부타입과 만드는 과정에서의 위생상태에 따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팩 사용 전, 팔 안쪽이나 턱 끝에 소량을 먼저 바른 후 가렵거나 붉게 변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레이저 시술로 민감해진 피부 관리

여름 동안 늘어난 피부 색소침착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찾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레이저 시술 후 피부가 더욱 민감해져 과색소침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관련 치료 의약품을 이용해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레이저 시술 후 염증과 과색소침착, 안면홍조, 피부 건조증, 트러블 악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와의 충분히 상담해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 관리법을 재점검 해보자. /최치선 기자



순하디
순하다
처음처럼
Fruits 유자
순하리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유자처럼 상큼하게
유자
우리들의 가벼운 I 순하리 처음처럼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순하리
처음
처럼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